



IFRS17 공시 사례 분석과 보험산업 경영과제

노건엽, 이소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목 차

• 요약	1
I.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선행연구	4
3. 연구 내용 및 구성	7
II. 공시 주요 내용	8
1. 개요	8
2. 감독회계공시	9
3. 일반회계공시	24
4. IFRS18	39
5. 소결	45
III. 해외 사례	47
1. 유럽	47
2. 영국(Aviva)	59
3. 독일(Allianz)	63
4. 캐나다(Manulife)	66
5. 소결	68
IV. 국내외 보험회사 공시 비교 분석	71
1. 개요	71
2. 국내외 보험회사의 공시 비교 분석	71
3. 소결	76
V. 보험산업 경영과제	78
• 참고문헌	80



〈표 II-1〉 정기공시 항목	10
〈표 II-2〉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차이 공시	11
〈표 II-3〉 정기공시 항목	12
〈표 II-4〉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14
〈표 II-5〉 보험부채 변동내역	15
〈표 II-6〉 보험계약마진 상각	15
〈표 II-7〉 보험금 예실차 비율	17
〈표 II-8〉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	17
〈표 II-9〉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등	19
〈표 II-10〉 가정민감도(보험위험)	21
〈표 II-11〉 가정민감도(금리위험)	21
〈표 II-12〉 원칙모형과의 차이(재무제표)	23
〈표 II-13〉 원칙모형과의 차이(K-ICS)	23
〈표 II-14〉 IFRS17 공시	24
〈표 II-15〉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총괄표	25
〈표 II-16〉 현금흐름 가정 및 산출근거(생명보험 A사)	26
〈표 II-17〉 현금흐름 가정 및 산출근거(생명보험 B사)	26
〈표 II-18〉 현금흐름 가정 및 산출근거(손해보험 A사)	27
〈표 II-19〉 현금흐름 가정 및 산출근거(손해보험 B사)	28
〈표 II-20〉 순보험계약부채의 변동내역(문단 100)	29
〈표 II-21〉 순보험계약부채의 변동내역(문단 101)	33
〈표 II-22〉 신계약 최초 인식 효과(문단 107)	36
〈표 II-23〉 보험계약마진 상각 스케줄(문단 109)	36
〈표 II-24〉 보험금융손익 내역(문단 110)	37
〈표 II-25〉 전환방법별 보험계약마진의 당기 변동내역(문단 114)	38
〈표 II-26〉 MPM 조정 내역 공시 사례	41
〈표 III-1〉 분석 대상 유럽 보험회사의 가정민감도 분석 및 재무제표 영향 공시 현황	56
〈표 III-2〉 ESMA의 10개 핵심 분석 항목 및 우수 공시 사례	57
〈표 III-3〉 주요 회계 정책(Aviva)	60
〈표 III-4〉 주요 대체 성과지표(Aviva)	62

〈표 III-5〉 주요 회계 정책(Allianz)	64
〈표 III-6〉 주요 대체 성과지표(Allianz)	65
〈표 III-7〉 전략적 우선순위(Manulife)	66
〈표 III-8〉 주요 성과지표 (Manulife)	68
〈표 IV-1〉 국내 A사와 아비바생명의 계약 정의 및 측정 단위 비교	72
〈표 IV-2〉 국내 A사와 아비바생명의 부채 측정 핵심 가정 비교	73
〈표 IV-3〉 국내 A사와 아비바생명의 리스크 공시 비교	75



〈그림 II-1〉 보험회계 체계	8
〈그림 II-2〉 감독회계 공시 관련 법규 현황	9
〈그림 II-3〉 K-IFRS 제1118호에 따른 재무보고 체계의 주요 변화	40
〈그림 II-4〉 현행 K-IFRS 영업손익의 주식 공시 양식	41
〈그림 II-5〉 IFRS18에서 보험회사 손익계산서(예시)	42
〈그림 II-6〉 주요 경영지표(미래에셋생명)	43
〈그림 II-7〉 주요 경영지표(현대해상)	44
〈그림 II-8〉 주요 경영지표(DB손해보험)	45
〈그림 III-1〉 분석 대상 유럽 보험회사의 사업별 회계모형 사용 현황	50

Abstract

Analysis of IFRS17 Disclosure Cases and Management Challenges in the Insurance Industry

The early years of IFRS17 implementation in Korea were marked by arbitrary actuarial assumptions, prompting three years of guideline-driven supervision. Now in its fourth year, the industry must shift toward a market-led verification framework grounded in robust public disclosure. This report compar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closure practices to identify key management challenges.

Korean insurers operate under a dual disclosure framework—IFRS17-based general accounting and Insurance Business Act-based supervisory accounting. General accounting disclosures, while formally compliant, present actuarial assumptions in overly compressed form and lack granularity in profit decomposition and CSM movement analysis. The March 2025 supervisory accounting revision introduced supplementary items—liability movement schedules, best-estimate assumptions, and sensitivity analyses—subsequently reflected in general accounting disclosures as well. This pattern reveals a structural gap: principle-based disclosures alone have proven insufficient.

ESMA's review of first-year IFRS17 statements from 16 insurers found formal compliance broadly achieved but specificity lacking. Leading companies provided entity-specific detail: liquidity premium components, risk adjustment diversification effects, and CSM coverage unit rationale. Aviva(UK) presents accounting policies as a standalone section and refines APM reporting; Allianz(Germany) publishes detailed APM reconciliations separately; Manulife(Canada) uses MD&A to link strategy with medium-term targets including CSM growth and core ROE.

Korean disclosures remain compliance-oriented and quantitative, whereas international peers employ narrative disclosures that integrate management judgment and enhance earnings visibility. Going forward, quantitative improvements—granular loss ratios by coverage type, clearer CSM movement schedules—and qualitative enhancements through management performance metrics are both essential. IFRS18(effective 2027) will formalize this shift by mandating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s as required note disclosures.

Enhanced quantitative precision and IFRS18-aligned qualitative disclosures will strengthen management accountability and build trust among policyholders and investors alike.

요약

IFRS17 도입 초기 발생한 계리가정의 자의적 적용 문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3년간 가이드라인 중심의 감독을 주도하였다. IFRS17 시행 4년차를 맞아, 이제는 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공시를 통한 시장 자율 검증 체계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공시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보험산업의 경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회사 공시는 일반회계(IFRS17 기준) 공시와 감독회계(보험업법 기준) 공시로 이원화되어 있다. 일반회계 공시는 기준서 원칙에는 충실하나, 계리적 가정이 포괄적·압축적으로만 제시되고 손익 구성 및 CSM 변동 세분화가 미흡해 정보 이용자가 부채 현금흐름과 보험손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3월 감독회계 공시에 재무정보 요약사항,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보험부채 변동내역, 최적가정, 가정민감도 등이 추가되었고, 이 내용이 다시 일반회계 공시에도 반영되었다. 원칙 중심의 일반회계 공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감독회계 공시로 보완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ESMA)은 16개 보험회사의 IFRS17 첫 적용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외형적 준수는 달성했으나 회계 정책·판단·추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수 사례 기업들은 할인을 내 유동성 프리미엄 수치 공개, 위험조정 분산효과 설명, CSM 상각 보장 단위 산정 근거 등 회사 특유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영국 아비바생명은 회계 정책을 재무제표 앞에 독립 배치하고 조정 영업이익 등 대체 성과지표(APM)를 정교화하였다. 독일 알리안츠는 재무제표 주석 내에 주요 회계 정책을 서술하고 대체 성과지표의 상세내역은 별도 문서로 작성한다. 캐나다 매뉴라이프는 경영진 논의·분석(MD&A) 보고서를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와 CSM 성장률·핵심 ROE 등 중기 목표치를 함께 제시한다.

국내 A사와 아비바생명을 비교한 결과, 국내 공시는 규제 준수 중심의 정형화된 양적 정보에 집중하는 반면, 해외는 경영진 판단과 전략을 결합한 서사적 공시로 미래 수익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공시의 양적 정보 측면에서는 담보별(사망·장해·입원·실손 등) 손해를 세분화 공시, CSM 변동내역의 일목요연한 재구성 등 일반회계 공시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질적인 공시 정보 측면에서는 경영전략과 내부 성과지표의 도입이 시급하다. 2027년 시행 예정인 IFRS18은 경영자 성과지표(MPM)를 주식 의무공시로 제도화하여 이 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다.

보험산업이 정밀한 양적 정보 공시로 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IFRS18 도입에 따른 질적 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별로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한다면 보험회사 경영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계약자·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가 좀 더 확대될 것이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IFRS17이 시행된지 올해(2026년)로 4년차를 맞이하였다. 시행 첫해인 2023년은 IFRS17 도입에 따른 우려를 씻어내고 자본과 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얼마 있지 않아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계리 가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에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과 무저해지보험 및 고금리상품 해약을 가정 산출기준 등을 제시¹⁾하였다. 2024년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정 적용 방안을 마련²⁾하였다. 또한 시장의 자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부채 현황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영공시 개선 등으로 노력하였다.

2025년은 건전성 제고 TF를 통해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³⁾하였다. 금융감독이 제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은 기본 원칙을 통해 계리가정을 수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관리 감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험부채 최선추정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손해를 가정 및 사업비용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보험산업은 보험부채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노력 중 시장참여자들이 접할 수 있는 공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의 공시는 IFRS17에 따른 일반공시, 보험업법에 따른 경영공시로 구분되며 두 가지 공시 모두 보험부채 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IFRS17을 도입한 해외 국가의 공시 현황과 국내 공시 현황을 비교하여 보험산업의 경영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5. 31.),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1. 17.), “신회계·자본제도(IFRS17·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 1. 21.), “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2. 선행연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감독 환경의 변화와 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는 제도의 도입 논의 단계에서부터 시행 이후의 실증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① 일반회계(IFRS17)와 감독회계의 관계 및 공시 체계 정립, ②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 재무 영향과 가치경영 과제, ③ 공시자료의 유용성 및 비교가능성 검증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가. 국내 선행연구

국내 선행연구는 제도 도입 준비기의 공시 체계 설계 논의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실제 산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재무적 영향 분석과 다양한 이익 지표의 정보 유용성 검증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우선, 리스크 중심 공시 체계의 필요성과 이원화된 회계 체계 하에서의 감독회계 역할 정립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었다. 금융권의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추세 속에서 류건식 외(2006)는 규제를 보완하는 시장 규율로서 공시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감독당국 주도의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였다. 이어 장동식 외(2012)은 유럽의 Solvency II 체계를 분석하여,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리스크의 특성 및 규모와 자본 적정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문화 정착의 핵심임을 역설하였다.

IFRS17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연구의 초점은 일반회계(IFRS17)와 감독회계 간의 역할 설정으로 구체화 되었다. 노건엽 외 3인(2022)는 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의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등 계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노건엽(2025)은 자율성이 강조되는 IFRS17 하에서도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제안하며, 해외 주요국의 감독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도 시행이 보험회사에 미친 재무적 영향과 이에 따른 가치경영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제도 시행 전, 김준현 외 2인(2020)는 정보 생산자인 보험회사 실무자 조사를 통해, 기존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위험조정(RA)

이나 보험계약마진(CSM)과 같은 새로운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할 것임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제도 시행 이후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노건엽 외 2인(2023a)는 부채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 변동성 확대와 발생주의 수익 인식 전환이 과거의 외형 성장(물량) 중심 경영을 수익성(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 노건엽 외 2인(2023b)는 2023년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IFRS17 전환 시 자본총계는 증가하지만 당기순이익과 CSM의 변동성 또한 크게 확대됨을 확인하고, 내재가치(EV)와 같은 보완적 성과지표의 공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준호 외(2023) 역시 부채 시가평가 효과를 분석하며, 회사별로 상이한 계리적 가정 사용이 변동성의 주원인임을 지적하고, 가정 변경 효과에 대한 상세한 주석 공시가 전제되어야 정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IFRS17 도입 후 공시자료가 자본시장에서 가지는 정보 유용성 및 가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변승무 외(2025)은 IFRS17 도입 후 보험회사 재무정보의 추가 설명력이 IFRS4 시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실증하여, 새 제도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함을 입증하였다.

특히 조석희(2024a, 2024b, 2024c)는 3편의 시리즈 연구를 통해 회계 정보의 상호보완성을 입증하였다. 조석희(2024a)는 현금흐름 정보 분석을 통해 발생주의 전환 이후에도 ‘수입보험료’ 및 ‘영업현금흐름’ 정보가 여전히 높은 가치 관련성을 가짐을 밝혔고, 조석희(2024b)는 감독회계상 자본 항목인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정보임을 규명하여 감독회계 공시의 보완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조석희(2024c)는 영업 손익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제도 시행 후 보험손익의 가치 관련성이 투자손익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실증함으로써 IFRS17이 보험 본연의 이익 정보를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나. 해외 선행연구

해외 선행연구는 IFRS17 도입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 간·회사 간 비교가능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2024)은 유럽 보험회사들의 IFRS17 최초 적용 재무제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새 제도가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를 과거의 블랙박스(Black Box)에서 투명한 열린 책(Open Book)으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할인을 적용이나 위험조정 산출 등 핵심적인 계리적 영역에서 회사 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비교가능성이 여전히 저해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er Hoeven et al.(2024) 역시 유럽 보험회사들의 2023년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된 민감도 분석과 부채 변동내역이 정보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지적하며 공시의 구체성 부족을 비판하였다. 영국 금융감독청(FCA 2024) 또한 첫째 공시 검토를 통해, 많은 보험회사가 '대체 성과지표(APMs)'와 GAAP 수치 간의 조정 내역을 불충분하게 공시하거나 상투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유사한 비교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PwC(2024a)의 호주 보험시장 분석과 PwC(2024b)의 싱가포르 보험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 공시 사항 외의 영역에서 회사 간 공시 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방법론의 선택이나 핵심 가정 공시에서 다양한 양태를 보였으며, 이는 글로벌 기준 도입에도 불구하고 회사별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시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Carvalho and Carvalho(2024)는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 대안으로, 확률론적 모형을 활용하여 발생사고부채(LIC)와 위험조정을 산출하고, 이를 주석에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양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외 선행연구들은 공시 제도의 정착이 단순히 기준서의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시 관행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다. 선행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국내 선행연구의 흐름을 종합하면, 제도 도입 준비 단계의 논의에서 시작해 초기 재무 영향 분석을 거쳐 최근에는 정보 유용성 검증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특히 최신 연구들은 보험손익 등 IFRS17 핵심 정보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한편(조석희 2024c), 계리적 가정에 기인한 이익 변동성이나 발생주의 회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감독회계 정보의 상호보완적 활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조석희, 2024a; 조석희 2024b).

기존 문헌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데이터를 단편적으로 분석하거나 도입 효과를 이론적으로 추정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준호 외, 2023; 노건엽 외 2인, 2023b).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 및 가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는지 규명한 실증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된 국내 제도 환경을 반영하고 유럽의 선진 공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공시 품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다. 나아가 IFRS17 체제 안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영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3.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연구는 국내 감독회계 공시와 일반회계 공시를 살펴보고, 해외 IFRS17 공시 현황과 비교를 통해 국내 공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제II장에서는 먼저 국내 공시 현황을 감독회계공시와 일반회계공시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후 제III장에서 해외 공시 현황을 전체 유럽 사례를 살펴보고 이후 영국, 독일 그리고 캐나다의 대표 보험회사 사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다음으로 제IV장은 국내 보험회사 공시 사례와 해외 보험회사 공시 사례를 비교한 후 마지막으로 보험산업 경영과제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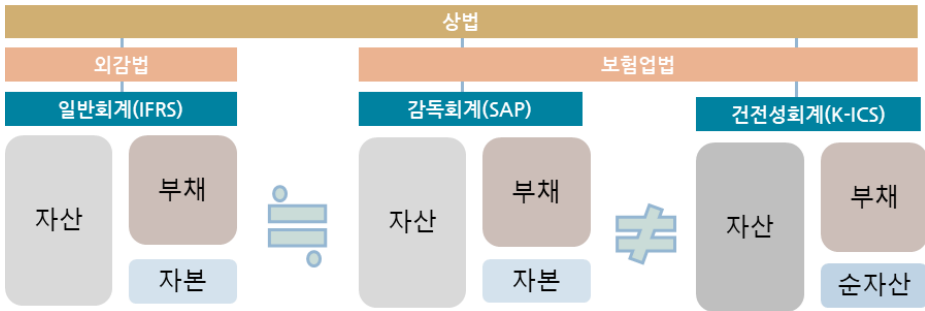
II

공시 주요 내용

1. 개요

IFRS17 도입으로 국내 보험 회계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회계기준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감독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회계기준 및 건전성 회계기준으로 구분된다.

〈그림 II-1〉 보험회계 체계



자료: 저자가 작성함

보험회계 중 일반회계기준은 주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 제공 목적이며, 감독회계기준은 재무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계약자를 보호하는 등 보험감독에 활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다. 한편, 건전성회계는 지급여력비율(K-ICS)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산과 부채 모두의 평가기준이다.

감독회계는 IFRS17에 기반하므로 보험부채 산출은 일반회계와 동일하며, 건전성회계에서 부채평가는 감독회계와 일부 차이가 있다. 일반회계는 미래현금흐름에 간접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으나 건전성회계는 간접사업비도 모두 포함되며, 보험부채 구성요소 중 보험계약마진이 건전성회계에서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자본에 내재적으로 포함되는 차이가 있다.

본 보고서는 계리 가정을 중심으로 공시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건전성회계공시는 제외하고 감독회계공시와 일반회계공시를 비교한다.

한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한 기준서인 IFRS18이 2027년부터 시행된다. IFRS18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과 손실 등 범주별로 중간단계의 합산 결과를 신설한다. 또한 영업 손익을 투자와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보여 준다. 또한 기업이 재무제표 이외의 방법(IR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자체적인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이하 'MPM'라 함)」로 정의하고, 이러한 지표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공된 값의 근거와 조정된 사항 등을 주석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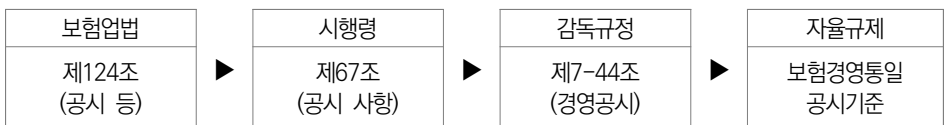
IFRS18 시행으로 인해 IFRS17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과 주석 공시가 변화되므로 이를 함께 살펴본다.

2. 감독회계공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영내용을 보험업법(124조 1항)에 따라 즉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감독규정에서 공시 내용,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세부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경영통일공시기준을 따른다. 보험회사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나 분기 결산은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그림 II-2〉 감독회계 공시 관련 법규 현황



자료: 저자가 작성함

시행령(67조)에서는 ① 재무 및 손익 ② 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③ 경영건전성 유지 목적의 금융위원회 명령, 보험회사 제재, 적기 시정 조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④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등 공시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감독규정(7-44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다. ①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③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④ 위험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영현황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지배구조법 제27조) ⑤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⑥ 주주총회결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감독규정에서 제시한 공시항목 및 방법은 생·손해보험협회의 보험경영통일 공시기준과 경영공시 시행세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가. 정기공시

정기공시에서는 주요 경영현황을 요약하고 일반현황과 경영실적, 재무상황, 경영지표 등을 제시하고 기타 경영현황을 설명하며, 일반회계 공시에서는 다루지 않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위험관리 등이 감독회계 공시에 포함된다.

〈표 II-1〉 정기공시 항목

구분	항목
주요 경영 현황 요약	주요 경영지표 및 경영효율지표 항목
일반 현황	선언문, 경영방침, 연혁·추이, 조직, 임직원 현황, 모집조직 현황, 자회사, 자본금, 대주주, 주식소유현황, 계약자배당, 주주배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
경영실적	경영실적 개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총괄)
재무상황	요약재무상태표(총괄), 대출채권 운용,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부동산 보유현황, 보험계약부채 및 자산 현황, 외화자산·부채,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부실대출채권 현황, 계약현황, 재보험 현황
경영지표	B/S상의 자기자본, 지급여력비율,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의 적립,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신용평가등급
위험관리	위험관리개요,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관리, 일반손해보험위험 관리, 시장위험관리, 신용위험관리, 운영위험관리, 유동성위험관리

〈표 II-1〉 계속

구분	항목
기타 경영 현황	자회사 경영실적,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내부 통제,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 사항, 임직원 대출 잔액,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민원발생건수, 불완전판매 비율, 유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현황, 보험금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사회 공헌활동, 손해사정업무 처리 현황, 손해사정사 선임 등, 신탁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식사항
기타	임원, 이용자 편람

자료: 생명보험경영공시 시행세칙(2023. 5. 31. 개정)

나. 차이 공시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요약 재무상태표(총괄)”에서 차이 금액을 표시하고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기술한다.

〈표 II-2〉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차이 공시

(단위: 억 원)

구분	일반회계(A)	감독회계(B)	차이 금액(A-B)	차이 원인
자산				
계정 A				
계정 B				
...				
부채				
계정 C				
계정 D				
...				
자본				
계정 E				
계정 F				
...				

주: 1) 차이가 발생한 항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교하여 작성함

2)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정성격이나 용어나 표기만 달리하는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생명보험경영공시 시행세칙(2023. 5. 31. 개정)

다. 최근 개선사항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계리의 가정, 보험계약마진 등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무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 공시는 여전히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으로 기술된 가정만이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정보 제공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전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하여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하는 방안이 보험개혁회의⁴⁾에서 논의되었다.

2025년 3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경영공시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정기공시의 재무상황 항목에서 재무정보 요약사항 기술, 보험계약부채 및 가정 관련 사항이 추가되었다.

〈표 II-3〉 정기공시 항목

항목		내용
4-1	재무정보 요약사항 기술	손익, 자산, 보험부채, 자본에 대한 현황 및 주요 변동원인 기술
4-2~5	(생략)	(생략)
4-6	보험계약부채 및 가정 관련 현황 1) 보험계약부채 및 자산 현황 2) 회계모형별,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3) 보험부채 변동내역 4) 최적가정 5) 가정민감도 6)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예외모형 사용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부채와 보험계약자산 현황, 회계모형별·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보험부채 변동내역, 보험부채 관련 최적가정, 가정민감도,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예외모형 사용에 관한 사항

주: 굵은 글자가 개정된 내용임
 자료: 생명보험경영공시 시행세칙(2025. 3. 4. 개정)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1. 7.), "IFRS17 안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합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1) 재무정보 요약사항 기술

‘재무정보 요약사항 기술’은 이익과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정보 현황과 주요 변동 요인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보험회사의 재무정보를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정보 요약사항 기술 예시

이번 연도(또는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조 원입니다. 영업이익 ***조 원 중 보험이익은 ***억 원이며, 투자이익은 ***억 원입니다. 영업외이익은 ***억 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입니다. 법인세는 ***조 원이며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이익을 가산하고 법인세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억 원입니다. 보험이익의 주요 원인은 예정 보험금 대비 실제 보험금 차이가 ***억 원이고,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 차이는 ***억 원입니다. 보험계약마진은 총 ***조 원 중 **%인 ***억 원이 상각되어 수익으로 인식하였고, 위험조정은 총 ***조 원 중 **%인 **억 원이 상각되어 수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투자이익은 금리 하락에 따라 ***억 원, 주가 상승에 따라 ***억 원, 이자 수익 ***억 원 등입니다. 매각에 의해 ***억 원이며 평가에 의해 ***억 원입니다.

(중략)

보험계약마진의 주요 변동 원인은 신계약 ***조 원, 가정변경 ***조 원, 물량변경 ***조 원, 상각액 ***조 원 등입니다.

자본은 ***조 원이며 이중 자본금 ***조 원, 자본잉여금 ***조 원, 이익잉여금 ***조 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조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익잉여금 변동원인은 ***이며, 기타포괄손익누계 변동원인은 ***입니다.

자료: 경영공시 서식

2) 보험부채 현황

보험부채는 회계모형별(일반모형, 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료배분접근법), 계약의 특성별(Non-Par/Indirect-Par/Direct-Par), 포트폴리오별로 보험부채 현황을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표 II-4〉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상품 유형	구분	포트폴리오	일반모형			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료 배분접근법
			최선 추정 부채	위험 조정	보험 계약 마진	최선 추정 부채	위험 조정	보험 계약 마진	
생명	Non-Par	유배당사망							
		무배당사망							
		변액사망							
		유배당건강							
		무배당건강							
		변액건강							
		유배당연금·저축							
		무배당연금·저축							
		변액연금·저축							
		자산연계형 연금·저축							
		유배당기타							
		무배당기타							
		변액기타							
		기타							

(이하 생략)

자료: 경영공시 서식

3) 보험부채 변동내역

보험부채의 변동내역은 '계리적 가정'과 '보험계약마진 상각'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계리적 가정'은 신계약과 해지율, 위험률, 사업비율 등 가정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물량차이 및 투자요소 예실차 등과 구분하여 기재한다. 위험조정인 경우 가정변경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물량차이로 처리한다.

〈표 II-5〉 보험부채 변동내역

구분	회사계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미래서비스의 변동			
신계약			
신계약 외 변동			
가정변경효과			
해지율 가정 변경			
위험률 가정 변경			
사업비율 가정 변경			
기타 가정 변경			
물량차이 및 투자요소 예실차 등			
손실요소			

주: 원수보험 및 수재보험계약의 잔여보장요소에 대하여 작성됨
 자료: 경영공시 서식

보험계약마진의 상각은 기간별, 포트폴리오별로 구분하여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기간은 1년~10년은 1년 단위, 11년부터 30년은 5년 단위, 그리고 30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회사 시스템상 출력되는 기간 구분이 표 양식과 상이한 경우는 양식의 기간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합리적으로 최선추정한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추정방식에 대한 설명 및 근거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표 II-6〉 보험계약마진 상각

구분	포트폴리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25년	26년~30년	30년 이후	계
Non-Par	유배당사망																
	무배당사망																
	변액사망																

〈표 II-6〉 계속

구분	포트폴리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25년	26년~30년	30년 이후	계
	유배당건강																
	무배당건강																
	변액건강																
	유배당연금·저축																
	무배당연금·저축																
	변액연금·저축																
	자산연계형연금·저축																
	유배당기타																
	무배당기타																
	변액기타																
	기타																

(이하 생략)

자료: 경영공시 서식

4) 최적가정

최적가정은 ‘보험금 예실차 비율’,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⁵⁾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보험금 예실차 비율’은 해당 보고기간의 보험금 예실차(예상손해율 - 실제손해율) 비율로 산출한다. 예상손해율은 ‘예상보험금/실제위험보험료’이며, 실제손해율은 ‘(발생명보험금 + 발생사고요소조정)/실제위험보험료’로 산출된다.

5) 예정유지비는 보험료 산출시점에 사용한 가정에 기반하여 설정된 값이며, 예상유지비는 부채 평가시점에 최적가정으로 추정한 값임

〈표 II-7〉 보험금 예실차 비율

구분	예상손해율(A)	실제손해율(B)	보험금 예실차 비율(C=A-B)
당기			
전기			

자료: 경영공시 서식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은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구분하여 위험보험료, 예상보험금 및 해당 금액 간 비율 정보를 경과 기간별로 적시한다. 이때 위험보험료를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 없는 경우 위험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최선추정하여 기재하며, 이 경우 해당 추정방식에 대한 설명 및 근거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표 II-8〉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

구분	포트폴리오	경과 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6	21	26	30	현재가치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15년	년 ~ 20년	년 ~ 25년		년 ~ 30년	년 이후
합계		예상보험금 (A)																		
		위험보험료 (B)																		
		비율(A/B)																		
Non-Par	유배당 사망	예상보험금 (A)																		
		위험보험료 (B)																		
		비율(A/B)																		
	무배당 사망	예상보험금 (A)																		
		위험보험료 (B)																		
		비율(A/B)																		

〈표 II-8〉 계속

구분	포트폴리오	경과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 15년	16년 ~ 20년	21년 ~ 25년	26년 ~ 30년	30년 이후	현재가치	
Non-Par	변액 사망	예상보험금 (A)																	
		위험보험료 (B)																	
		비율(A/B)																	
	유배당 건강	예상보험금 (A)																	
		위험보험료 (B)																	
		비율(A/B)																	
	무배당 건강	예상보험금 (A)																	
		위험보험료 (B)																	
		비율(A/B)																	
	변액 건강	예상보험금 (A)																	
		위험보험료 (B)																	
		비율(A/B)																	

(이하 생략)

자료: 경영공시 서식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등’도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구분하여 예정유지비, 예상유지비 등(예상유지비, 예상무관체결비 및 예상투자관리비) 및 해당 금액 간 비율 정보를 경과 기간별로 정리한다. 예정유지비를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 없는 경우 예정유지비를 합리적으로 최선추정하여 기재하며, 이 경우 해당 추정방식에 대한 설명 및 근거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표 II-9〉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등

구분	포트 폴리오	경과 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6	21	26	30	현재가치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예상유지비 등(A)																
		예정유지비 (B)																
		비율(A/B)																
Non-Par	유배당 사망	예상유지비 등(A)																
		예정유지비 (B)																
		비율(A/B)																
	무배당 사망	예상유지비 등(A)																
		예정유지비 (B)																
		비율(A/B)																
	변액 사망	예상유지비 등(A)																
		예정유지비 (B)																
		비율(A/B)																
	유배당 건강	예상유지비 등(A)																
		예정유지비 (B)																
		비율(A/B)																
	무배당 건강	예상유지비 등(A)																
		예정유지비 (B)																

〈표 II-9〉 계속

구분	포트폴리오	경과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 15년	16년 ~ 20년	21년 ~ 25년	26년 ~ 30년	30년 이후	현재 가치
		비율(A/B)																
	변액 건강	예상유지비 등(A)																
		예정유지비 (B)																
		비율(A/B)																

(이하 생략)

자료: 경영공시 서식

5) 가정민감도

가정민감도는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에 대해 변동금액 및 이익 및 자본 영향을 살펴본다.

보험위험은 사망률, 장해질병(정액보상), 장해질병(실손해보험상), 장기재물기타, 해지율(상승), 해지율(하락), 사업비(수준), 사업비(인플레이션) 가정별로 충격에 따른 보험부채(이행현금흐름 및 보험계약마진으로 구분) 변동금액과 이익 및 자본 영향(세전)을 작성한다.

신뢰수준 75% 기준의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최선추정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추정방식에 대한 설명 및 근거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기손익 영향은 가정변동으로 인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최선추정부채 증가분을 의미한다.

〈표 II-10〉 가정민감도(보험위험)

구분	충격 수준	기준금액		변동금액		이익 및 자본 영향 (세전)	
		이행 현금흐름	보험계약 마진	이행 현금흐름	보험계약 마진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사망률	3.27% 증가						
장해질병 (정액보상)	3.40% 증가						
장해질병 (실손해보험상)	2.62% 증가						
장기재물기타	4.19% 증가						
해지율(상승)	9.16% 증가						
해지율(하락) 사업비(수준)	9.16% 감소 2.62% 증가						
사업비 (인플레이션)	0.26%p						

자료: 경영공시 서식

금리위험은 금리 100bp 상승·하락 시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영향(세전)을 금융자산, 보험계약 및 출재보험계약 관련 효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표 II-11〉 가정민감도(금리위험)

구분단위		당기손익(세전)	기타포괄손익(세전)
100bp 상승	금융자산		
	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100bp 하락	금융자산		
	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자료: 경영공시 서식

6)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예외모형 사용에 관한 사항

「계리적 가정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실무표준」에 따른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예외모형을 사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① 선형-로그모형 채택 근거 등 ② 원칙모형과의 차이(재무제표) ③ 원칙모형과의 차이(K-ICS 비율)를 작성한다.

선형-로그모형 채택 근거 등은 타 모형에 대한 합리적인 채택 근거와 계리법인 외부 검증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원칙모형과의 차이(재무제표)는 예외모형을 사용한 경우와 원칙모형을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에 대한 보험계약부채(잔여보장요소로 한정하며, 최선추정부채/위험조정/보험계약마진으로 구분 표시함) 및 당기순이익 금액을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원칙모형과의 차이(K-ICS 비율)에서 예외모형을 사용한 경우와 원칙모형을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에 대한 K-ICS 비율, 요구자본, 가용자본을 기재하며, K-ICS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경과조치 적용 전·후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전체 보험회사 중 1개사가 2024년 말 결산 시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예외모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보험회사의 선형-로그모형 채택 근거 등은 통계적 충분성과 모형 적합도를 통해 합리성을 입증하였으며 계리법인의 외부검증도 수행하였음을 기술하였다.

선형-로그모형 채택 근거 등

당사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한 계리적가정 산출 가이드란’에 따라 예외모형 선택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문서화하였습니다.

1) 합리성 입증

(통계적 충분성 I) 당사 및 해외 유사상품 경험통계 등을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예외모형 적용을 위한 통계적 충분성이 확보되었음을 입증하고 문서화하였습니다.

(통계적 충분성 II) 예외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원칙모형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수준임을 입증하고 문서화하였습니다.

2) 계리법인 외부검증 결과

당사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예외 모형 적용근거에 대한 계리법인 검증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 평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 경영공시

재무제표상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보여주어 예외모형은 당기에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원칙모형은 당기순손실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2〉 원칙모형과의 차이(재무제표)

(단위: 억 원)

구분	2024년		2023년	
	예외모형	원칙모형	예외모형	원칙모형
재무제표 항목				
보험계약부채(잔여보장요소)	52,282	53,099	해당사항 없음	
• 최선추정부채	24,571	28,009		
• 위험조정	3,951	4,126		
• 보험계약마진	22,532	19,737		
•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1,227	1,227		
당기순이익(손실)	242	(329)		

자료: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 경영공시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예외모형은 154.59%이나 원칙모형은 127.42%로 27.17%p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3〉 원칙모형과의 차이(K-ICS)

(단위: 억 원, %)

구분		2024년		2023년	
		예외모형	원칙모형	예외모형	원칙모형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125.85	107.14	해당사항 없음	
	지급여력금액	27,301	24,520		
	지급여력기준금액	21,693	22,886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154.59	127.42		
	지급여력금액	27,301	24,520		
	지급여력기준금액	17,660	19,244		

자료: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 경영공시

3. 일반회계공시⁶⁾

IFRS17에 따른 공시는 보험회사의 재무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 IFRS4에 비해 재무제표 인식금액, 유의적인 판단 및 판단의 배경 등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IFRS17 기준서 총 132개 문단 중 공시는 문단 93부터 문단 132까지 40개 문단으로 기준서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보험계약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재무 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모두 공시할 것을 기준서에 서는 요구하고 있다.

〈표 II-14〉 IFRS17 공시

구분	문단 번호	주요 내용
일반 사항	93~96	공시 개요
재무제표 인식 금액	97~116	부채구성요소별 변동내역, 보험수익, 신계약효과, 보험계약마진 상각스케줄 등
유의적인 판단 및 판단의 배경	117~120	투입변수, 보험금융손익 정책, 위험조정 신뢰수준, 할인율 등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121~132	위험관리방법, 위험익스포저, 위험의 집중도, 민감도 분석 등

자료: 저자가 작성함

공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술되어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⁷⁾에서 제공하는 사업보고서의 주요 공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가.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문단 99에 따라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 총계와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 총계로 세분하여 문단 78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기초와 기말의 순장부금액을 표시한다.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와 관련된 주석의 첫 번째로 보여주는 표로서 개괄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총괄표 역할을 한다.

6) 이태기 외 3인(2024)을 참고하여 정리함

7)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표 II-15〉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총괄표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순부채	자산	부채	순부채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A						
포트폴리오 B						
포트폴리오 C						
합계						

자료: 사업보고서 서식

간편법인 보험료배분접근법(PAA) 회계모형을 적용한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문단 97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어느 기준을 충족하여 PAA 회계모형을 적용하는지(일반모형(BBA)과의 유사성을 충족하였는지 아니면 보장기간이 1년 미만인지)
-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조정하는지(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의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 조정여부가 선택사항임)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인식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PAA 회계모형 적용 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즉시 비용 인식 가능함)

나. 현행추정치의 가정과 산출근거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으로 해약률, 위험률(손해율, 지급률), 사업비율, 할인율을 제시하며, 위험조정에 대한 신뢰수준도 함께 기술한다. 각 가정별 산출근거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2개사(전체 4개사)의 공시 사항을 비교한다.

회사별(생명보험 A, B사, 손해보험 A, B사)로 산출근거에 대한 기술 방식이 일부 다른 면은 있으나 가정에 대한 구분은 5종류로 분류하므로 동일하다. 또한 가정을 포트폴리오별로 구분하지 않고 산출근거도 대략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이를 통해 미래현금흐름 추정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비율은 4개사 중 1개사만 기술하고 있어 사업비율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기 어렵다.

〈표 II-16〉 현금흐름 가정 및 산출근거(생명보험 A사)

구분	가정값	산출근거
해약률	0~89%	2024년 6월 말 기준, 최근 5년 경험 통계를 근거로 산출된 상품그룹별, 납입방법별, 채널별, 경과 기간별로 계약보험료 대비 해약보험료의 비율 ※ 초기 36회차의 경우 최근 3년 경험 통계 사용
위험률	11~731%	2024년 6월 말 기준, 최근 5년 경험 통계를 기초로 담보별, 성별, 배당 구분, 경험생명표별 기준으로 산출한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 ※ 지급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직전 5년 통계를 사용하고, 미보 고발생손해액의 진전율을 반영한 중국 지급보험금 기준
사업비용	-	보험 영업규정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환산성적, 설계사수수료, 신/보유계약건수, 보험료, 준비금 등 비례 단위비용으로 산출 ※ 통계기간: 계약체결비, 계약유지비, 손해조사비는 1년 적용/ 투자관리 비용은 3년 적용
할인율	(-)3.76 ~15.95%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장기선도금리 및 유동성프리미엄 반영)에 시장 에서 거래되는 자산과 일관성을 가지는 모수를 추정하여 1,000개 금리시 나리오로 적용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신뢰수준	75%	각 보고시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75% 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가중평균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험조정으로 산출

자료: 생명보험 A사 사업보고서

〈표 II-17〉 현금흐름 가정 및 산출근거(생명보험 B사)

구분	가정값	산출방법
해약률	0~6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를 근거로 산출된 납입구분별, 상품그룹별, 금리구분별, 납기별(무·저해지상품), 채널별, 경과 기간별로 유지계약 금액 대비 해약계약 금액 의 비율 무·저해지상품의 경우 경험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과 기간의 해약률 은 로그-선형(Log-linear)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 에 0.1%로 수렴하도록 산출
손해율	8~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사망 이외: 최근 5개년 경험 통계를 기초로 한 위험담보별·경과 기간별 운레벨위험보험료 대비 사고보험금 비율 일반사망: 최근 5개년 경험 통계를 기초로 한 위험담보별·경과 기간 별 예정 사망률 대비 실제 사망률의 비율
사업비용	-	회사의 최근 경험 통계를 기반으로 미래 사업비 정책이 반영된 사업계 획을 기초 통계로 사용하여 환산성적, 설계사수수료, 신/보유계약건수, 신/계속보험료, 준비금 등 비례 단위비용으로 산출

〈표 II-17〉 계속

구분	가정값	산출방법
할인율	2.31 ~4.55%	• 금융감독원 공시기준 금리기간구조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신뢰수준	75%	• 각 보고시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75% 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가중평균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험조정으로 산출

자료: 생명보험 B사 사업보고서

〈표 II-18〉 현금흐름 가정 및 산출근거(손해보험 A사)

구분	가정값	산출근거
해약률	(1~5차년) 12~9%	• 4채널 12개 분류(상품군) • 대상기간 중 정상계약에서 해지된 건의 비율 • 통계기간: 5년
지급률	72~104%	• 4채널 25개 분류(담보군) •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 • 통계기간: 10년
사업비용	-	• (계약체결비용(유관)) 수수료 정책에 따른 지급률 및 시책비용 설정 • (계약체결비용(무관), 계약유지비용, 투자관리비용): 11채널 14개 분류(상품군) • (손해조사비용): 25개 분류(담보군) • 사업비(원가동인별 배부액)를 원가동인(건수, 보험료, 준비금 등)에 비례하여 산출한 단위비용 • 통계기간: 1년
할인율	2.31 ~4.55%	•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국고채)과 일관성을 가지는 모수와 금융감독원 제공 산출기준을 바탕으로 조정무위험 금리기간구조(유동성프리미엄 가산) 산출 • 최대관찰만기(LLP): 20년, 최초수령시점(CP) : 60년, 장기수령금리(LTFR): 4.55% • 난수 생성 후 1,000개의 금리시나리오 산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신뢰수준	75%	•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위험조정은 회사의 자체 위험회피성향 등을 반영하여 정한 신뢰수준 및 위험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신뢰수준은 최소 75% 이상으로 함을 준용

자료: 손해보험 A사 사업보고서

〈표 II-19〉 현금흐름 가정 및 산출근거(손해보험 B사)

구분		가정값	산출근거
해약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형 납입 중 해지율 2.0~41.5% 무/저해지형 납입 중 해지율 0.1~35.0% 	2024년 6월 말 기준, 직전 5년 경험 통계를 사용하여 상품군별(16개), 채널별(4개), 납입상대별, 경과 기간별(12년), 상품속성(간편고지 여부) 보유계약 보험료 대비 해약, 실효 보험료 비율로 산출
지급률		온레벨 손해율 83.5%	<p>2024년 6월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은 직전 5년, 비실손 의료보험은 직전 7년의 경험 통계를 기초로 담보군별(43개), 채널별(3개), 도달연령군별(5개, 비용및재물손해 제외), 경과년도별(최대15차년)로 산출한 온레벨위험보험료 대비 최종손해액의 비율</p> <p>※ 최종손해액에 사용하는 손해진전계수는 직전 10년통계를 사용하고 산출 시 PLDM 50% ILDM 50%를 가중평균하여 적용하며, 후유장해의 경우 Tail-Factor가 존재할 경우 반영함</p>
사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신계약비 보험료 무관: 8.2~53% 직접유지비: 4.6~6.6% 	<p>2024년 6월 말 기준, 실제사업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속성에 따라 분류/배분하고, 수입보험료, 신/보유계약건수, 적립금 등 단위당 비용으로 산출</p> <p>※ 직접신계약비 중 모집 수수료/시책비는 집행계획으로 적용</p> <p>※ 통계기간: 사업비, 손해조사비는 직전 1년 적용, 투자관리비는 직전 3년 적용</p>
할인율	무위험 수익률	2.3~4.55%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장기선도금리 및 유동성프리미엄 반영)
	시나리오	-3.80~20.12%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장기선도금리 및 유동성프리미엄 반영)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과 일관성을 가지는 모수를 추정하여 1,000개 금리시나리오로 적용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신뢰수준		75%	각 보고시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75% 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가중평균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험조정으로 산출

자료: 손해보험 B사 사업보고서

다. 순보험계약부채의 변동내역

순보험계약부채의 변동내역표는 공시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기초잔액부터 기말잔액까지의 순보험계약부채의 변동내역을 공시하되, 문단 100에 따라서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를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공시하는 표가 있고, 이와 별도로

로 문단 101에 따라서 보험부채의 구성요소별(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로 변동내역을 공시하는 표가 있다.

먼저 문단 100에 따라서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를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공시하는 표에서는 잔여보장부채는 손실요소를 제외한 금액과 손실요소 금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발생사고부채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BEL)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A)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손실요소의 변동내역을 별도로 구분하므로 신계약에서의 손실 인식금액, 후속측정 시 손실부담계약으로 전환된 금액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표 II-20〉 순보험계약부채의 변동내역(문단 100)

구분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합계
	손실 요소 외	손실 요소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 보험계약부채					
기초 보험계약자산					
기초 보험계약순부채					
보험수익					
예상보험금					
예상보험서비스비용					
위험조정의 변동					
보험계약마진 상각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료 및 관련 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서비스비용					
발생명보험보험금					
발생명보험서비스비용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 변동					
손실요소의 전입(환입)					

〈표 II-20〉 계속

구분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합계
	손실 요소 외	손실 요소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상각					
투자요소					
실제발생투자요소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이자비용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할인율변동효과					
환율변동효과					
현금흐름					
수취보험료					
지급한 보험금					
지급한기타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현금흐름 지급					
기말보험계약순부채					
기말보험계약부채					
기말보험계약자산					

자료: 사업보고서 서식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부채 변동내역의 포트폴리오별 구분을 살펴보면 생명보험 A사는 사망보험, 건강보험, 연금과 저축보험의 3가지 포트폴리오로, 생명보험 B는 사망보험, 건강보험, 연금 및 저축보험, 변액보험의 4가지 포트폴리오로 구분한다.

손해보험 A사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과 적용하지 않는 계약의 2가지 포트폴리오로, 손해보험 B사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

보험으로 구분하고,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의 3가지 포트폴리오로 구분한다.

회사별 구분 기준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2~4가지 종류의 포트폴리오로만 구분된다. 유배당과 무배당, 변액연금 및 변액종신,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등 포트폴리오 내 세부 상품의 변동내역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문단 103에 따라서 변동내역은 1) 보험수익, 2) 보험서비스비용 그리고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된 3) 투자요소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단 105에 따라서 4) 보험금융손익과 5) 현금흐름에 대한 세부 변동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보험수익

보험수익은 '예상현금흐름', '위험조정액의 변동', '보험계약마진 상각',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료 및 관련현금흐름의 경험조정'으로 구성된다.

-
- 예상현금흐름: 예상보험금, 예상보험서비스비용(예상사업비) 등
 - 위험조정액의 변동: 당기 위험의 해제로 위험조정이 감소하여 수익 인식한 금액
 - 보험계약마진 상각: 당기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상각한 보험계약마진
 -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계약 만기까지 배분되어 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 보험료 및 관련현금흐름의 경험조정: 미래 서비스와 무관한 보험료 경험조정
-

2)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서비스비용은 '발생손해액',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 추정치', '손실요소의 전입(환입)',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을 나타낸다.

-
- 발생손해액: 발생명보험금, 발생명보험서비스비용(발생사업비) 등
 -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 추정치 변동: 당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당기말 발생사고부채 추정 금액의 변동(개별 추산금액의 변동, 보험금지급진전계수 업데이트로 인한 IBNR의 변동 등)
 - 손실요소의 전입(환입): 잔여보장부채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 중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계약 만기까지 배분되어 비용 인식되는 금액
-

3) 투자요소

‘실제 발생 투자요소’는 당기 잔여보장부채에서 제거되어 발생사고부채에 인식된 금액이다.

4) 보험금융손익

보험금융손익은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이자비용’과 ‘할인율 및 환율 변동효과’를 표시한다.

-
- 이자비용: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에서의 당기 화폐시간가치 효과(Unwinding effect)
 - 할인율/환율 변동효과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에서의 전기말 대비 당기말 할인율/환율의 변동효과, OCI법 회계 정책을 선택한 회사는 기타포괄손익인식 구분표시
-

5) 현금흐름

현금흐름은 ‘수취보험료’, ‘지급한 보험금 및 기타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현금흐름 지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험취득현금흐름은 주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직접신계약비)에 해당한다.

-
- 수취보험료: 당기 실제 수취한 보험료(기존 IFRS4에서의 수익 정보가 공시됨)
 - 지급한 보험금/기타보험서비스비용: 당기 실제 지급한 보험금/기타보험서비스비용(투자요소 포함)
 - 보험취득현금흐름 지급: 당기 실제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

문단 101에 따라서 보험부채의 구성요소별로 변동내역을 공시하는 표는 일반모형(BBA)를 적용하는 보험계약에만 해당하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그리고 보험계약마진으로 구분하여 당기 중 변동내역을 공시한다.

〈표 II-21〉 순보험계약부채의 변동내역(문단 101)

구분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 마진	합계
기초보험계약부채				
기초보험계약자산				
기초보험계약순부채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변동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변동				
신계약효과				
당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보험계약마진 상각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경험조정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 변동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이자비용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할인율변동효과				
환율변동효과				
현금흐름				
수취보험료				
지급한보험금				
지급한기타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현금흐름 지급				
기말보험계약순부채				

〈표 II-21〉 계속

구분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 마진	합계
기말보험계약부채				
기말보험계약자산				

자료: 사업보고서 서식

문단 104에 따라서 변동내역은 ①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② 현재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③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변동과 조정하지 않는 변동’을 표시하고 ‘신계약효과’를 나타낸다.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변동: 당기말 예상 대비 실제 보유계약의 변동효과, 당기말 계리적 가정의 변동효과, 당기말 재량가정(공시이율의 조정률 등)의 변동효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경험조정(보험료, 보험료 관련 보험취득현금흐름, 투자요소)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변동: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과 동 손실의 환입
- 신계약효과: 당기 신계약의 최초 인식 시점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그리고 보험계약마진 인식 금액

② 당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당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은 ‘보험계약마진 상각’,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경험조정’으로 구성된다.

-
- 보험계약마진 상각: 당기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상각한 보험계약마진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액의 변동: 당기 위험의 해제로 위험조정이 감소하여 수익 인식한 금액
 - 경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경험조정(보험금, 보험서비스비용, 보험료와 무관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등)
-

③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은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 변동: 당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당기말 발생사고부채 추정금액의 변동(개별 추산금액의 변동, 보험금지급진전계수 업데이트로 인한 IBNR의 변동 등)
-

문단 105에 따라 공시하는 보험금융손익과 현금흐름에 대한 세부 변동내역은 문단 100에 따른 공시와 동일하다.

라. 신계약 최초 인식 효과

문단 107에 따라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당기 신계약의 최초인식시점 잔여보장부채 항목별 인식금액은 '미래 현금 유출액 현재가치 추정치', '미래 현금 유입액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
- 미래 현금 유출액 현재가치 추정치(단,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별도 표시)
 - 미래 현금 유입액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신계약 최초 인식 시 손실계약집합과 손실계약집합이 아닌 계약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하지만, 손실계약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고, 포트폴리오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포트폴리오별 손실계약을 인식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표 II-22〉 신계약 최초 인식 효과(문단 107)

구분	순보험계약부채		순재보험계약자산	
	손실계약 집합 외	손실계약집합	순이익계약 집합 외	순이익계약집합
미래 현금유출 현금흐름 현재 가치 추정치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취득현금흐름 외 (보험금 및 보험서비스비용)				
미래 현금유입 현금흐름 현재 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합계				

자료: 사업보고서 서식

마. 보험계약마진 상각 기간별 잔액

문단 109에 따라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당기말 보험계약 마진의 미래 각 시점별 상각금액을 공시한다. 기간 구분이 1년, 3년, 5년으로만 되어 있다. 보험기간이 장기인 계약을 고려하여 10년, 20년 등 좀 더 긴 기간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것이다.

〈표 II-23〉 보험계약마진 상각 스케줄(문단 109)

구분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순보험계약부채					
순재보험계약자산					

자료: 사업보고서 서식

바. 보험금융손익

문단 110에 따라 당기에 인식한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여 내역을 공시한다.

〈표 II-24〉 보험금융손익 내역(문단 110)

구분	포트폴리오 A	포트폴리오 B	포트폴리오 C	합계
당기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이자비용 등				
환율변동효과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할인율 및 금융가정 변경효과				
기타				
보험계약부채(자산) 금융비용				
당기손익인식 재보험금융손익				
이자수익				
환율변동효과				
재보험계약 불이행위험 변동효과				
기타포괄손익인식 재보험금융손익				
할인율 및 금융가정 변경효과				
기타				
재보험계약자산(부채)금융수익				
총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총보험금융손익				
기타포괄손익인식 총보험금융손익				

자료: 사업보고서 서식

사. 전환 관련 공시

문단 114에 따라 전환시점에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측정된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 대해서는 전환방법의 차이가 전환 이후 후속 기간의 보험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공시한다.

(표 II-25) 전환방법별 보험계약마진의 당기 변동내역(문단 114)

구분	수정소급법 적용 계약집합	공정가치법 적용 계약집합	그 외 계약집합	합계
순보험계약부채				
기초 보험계약마진 잔액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당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보험계약마진이자비용				
당기말 보험계약마진 잔액				
당기 보험수익				
순재보험계약자산				
기초 보험계약마진 잔액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당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보험계약마진이자수익				
당기말 보험계약마진 잔액				
당기 재보험비용				

자료: 사업보고서 서식

아. 감독회계 공시 사항 반영

일반회계 공시에는 앞서 설명한 감독회계 공시 사항 중 재무정보 요약사항을 제외한 회계 모형별,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보험부채 변동내역, 최적가정, 가정민감도 등이 추가로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감독회계 공시가 일반회계 공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감독회계 공시는 일반회계보다 좀 더 상세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어 감독회계로 인해 보험부채 변동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IFRS18

가. IFRS18의 제정 배경 및 공시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공시기준인 IAS 1을 대체하는 IFRS18을 2024년 4월 확정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 투자, 재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신설하여 기업의 성과를 원천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보여주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특정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잔여 범주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에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항목들이 영업이익으로 편입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가 기업의 핵심 수익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토대를 제공한다.

정보 이용자와의 소통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비회계 지표(Non-GAAP)를 '경영진 정의 성과측정치(MPM)'로 제도화하여 공시 주석에 기술하도록 강제한다. 기업은 MPM과 IFRS 중간합계 사이의 상세한 조정 내역을 밝혀야 하며, 특히 이 과정이 외부 감사인의 검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표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대폭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보고 양식의 변경을 넘어 기업의 재무보고 전략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요구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IFRS18은 최초 적용 시 비교 목적으로 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와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K-IFRS 제1118호의 주요 특징 및 도입 사항⁸⁾

한국회계기준원은 글로벌 공시 환경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 12월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제정하였다. 본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18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국내 정보 이용자들이 오랜 기간 성과 측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해 온 영업손익의 가치를 고려하여 '수정 도입' 방식을 채택하였다.

8) 한국회계기준원(2025),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을 바탕으로 정리함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 기업은 손익계산서 구조의 표준화, 경영진 성과측정치(MPM)의 주석 공시, 정보 세분화 강화 등 글로벌 공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기존의 영업 성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이원화 공시 체계를 갖추게 된다. 다음은 이러한 재무보고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약한 주요 항목들이다.

〈그림 II-3〉 K-IFRS 제1118호에 따른 재무보고 체계의 주요 변화



자료: 도원회계법인(2025), “KIFRS 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공표_2025. 12. 19.(공표일)”

새로운 기준은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IFRS18에서 정의한 새로운 ‘영업손익’ 중간합계를 본문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기존 영업이익 지표가 지닌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방식의 영업손익(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을 시행 후 3년간 주석에 계속 공시하도록 하는 수정 도입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는 기준 변경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잔여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거 지표와의 시계열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보이용자는 본문의 포괄적 영업손익과 주석의 현행 영업이익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I-4〉 현행 K-IFRS 영업손익의 주식 공시 양식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12. 18.), “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재무제표 외부에서 자율적으로 활용되던 자체 성과지표는 ‘경영진 정의 성과측정치(MPM)’로서 공식 재무보고 체계 내로 편입된다. K-IFRS 제1118호는 MPM을 하나의 독립된 주식 항목으로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지표의 산정 이유와 공식 중간합계와의 차이 조정 내역을 상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주식 공시 사항을 외부 감사인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험회사 등 기업이 제시하는 조정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기업이 임의로 유리한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재무보고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표 II-26〉 MPM 조정 내역 공시 사례

구분	IFRS18	차이 조정 항목			MPM
		영업권 손상차손	구조조정 비용	유형자산 처분이익	
기타영업수익		-	-	(1,800)	
연구개발비		1,600	-	-	
판매관리비		-	3,800	-	
영업권손상차손		4,500	-	-	
영업손익/조정영업손익	57,000	6,100	3,800	(1,800)	65,100
법인세비용		-	(589)	297	

〈표 II-26〉 계속

구분	IFRS18	차이 조정 항목			MPM
		영업권 손상차손	구조조정 비용	유형자산 처분이익	
당기순손익/조정당기순손익	32,100	6,100	3,211	(1,503)	39,908
비지배지분 손익		305	161	-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25),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다.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IFRS18 도입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손익계산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이익은 기존에 영업외이익으로 분류된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표시되며, 지분법손익은 투자항목에,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재무항목에 표시되어 투자항목과 재무항목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그림 II-5〉 IFRS18에서 보험회사 손익계산서(예시)

보험회사 손익계산서	
보험수익	영업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서비스 결과	
투자수익	
신용손상차손	
보험금융비용	
순금융결과	
기타영업비용	
영업이익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 지분법손익 / 처분손익	
재무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재무
차입금 이자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자료(2025. 12. 10.), "2025년 K-IFRS 제·개정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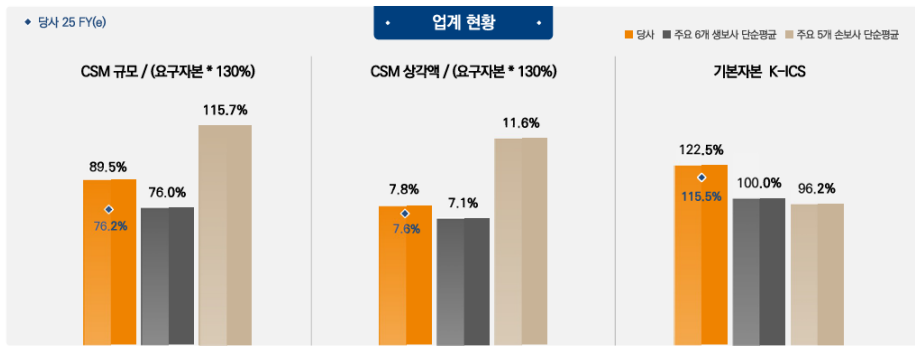
한편, 성과평가 관련 항목이 새롭게 기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보험회사의 IR 자료를 통해 IFRS18 시행에 따른 회사의 내부 성과평가에 관련된 지표와 항목을 추정해 본다. 상

장 보험회사 중 내부 성과평가 지표가 있는 생명보험 1개사, 손해보험 2개사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주요 경영지표로 [CSM규모/(요구자본×130%)], [CSM상각액/(요구자본×130%)] 등을 제시한다. 경영지표의 실제 산출 결과와 주요사와의 비교를 통해 요구자본을 고려한 수익성 수준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II-6〉 주요 경영지표(미래에셋생명)

요구자본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익성 개선 추구	[단위 : 십억원]						
	① CSM 규모	② 요구자본(e)	③ 25 FY CSM 상각액	④ 신계약CSM	① / ② *130%	③ / ④ *130%	신계약 RAROC
	2,058.4	2,079.0	205.8	539.9	76.2%	7.6%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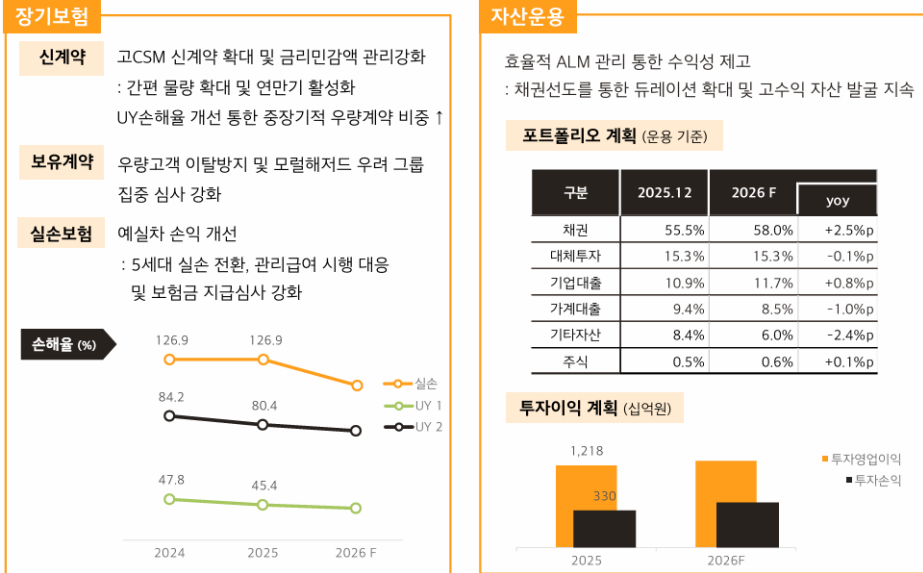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 IR 자료(2026. 2.)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장기보험과 자산운용에 대한 경영전략을 통해 내부 성과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으나 경영전략 항목을 상세히 설명한다.

장기보험은 CSM 규모가 신계약 확대, 금리민감도 관리 강화, 예실차 손익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자산운용은 효율적 ALM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포트폴리오 계획을 함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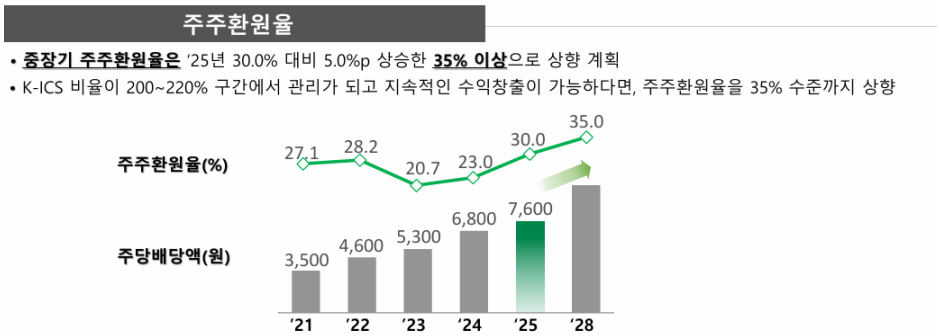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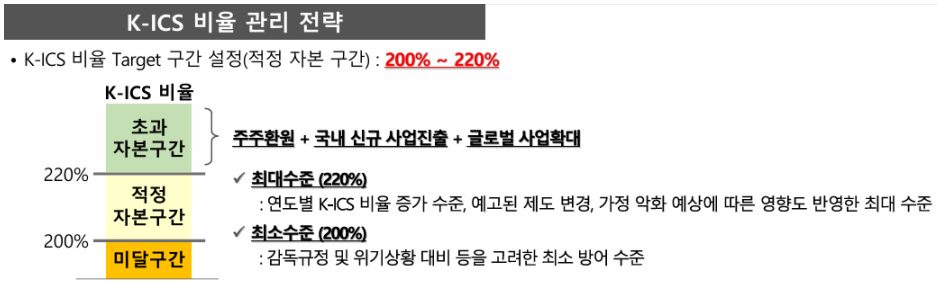
(그림 II-7) 주요 경영지표(현대해상)



자료: 현대해상 홈페이지, IR 자료(2026. 2.)

DB손해보험은 경영지표로 K-ICS 비율에 따른 자본관리전략과 주주환원을 등 중장기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K-ICS 비율은 200~220%를 적정 자본구간으로 하며 220%를 초과하면 주주환원, 국내 신규사업진출, 글로벌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주주환원율도 적정 자본구간에서 지급여력비율이 관리되고 수익창출이 지속된다면 35% 수준까지 상향하는 계획을 제시한다.

〈그림 II-8〉 주요 경영지표(DB손해보험)



자료: DB손해보험 홈페이지, IR 자료 (2026. 2.)

상장사 위주로 제시된 내부경영지표, 경영전략 등은 IFRS18 도입으로 인해 전체 보험회사까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 재무제표의 질적 경영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계약자 및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소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회계공시는 IFRS17 기준서에서 제시한 원칙에 충실하게 작성되어 공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포괄적인 가정 및 일반론만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유의미한 정보 제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반회계 공시 사항 중 '현금흐름 가정 및 산출근거'는 회사 전체 현황만 보여주고 있어 '담보별 손해를 가정' 또는 '상품별 해지율 가정'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 또한 '순보험계약 부채의 변동내역'도 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2~4가지 포트폴리오로만 구분되어 유배당과

무배당, 변액연금 및 변액종신,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등 세부 상품별로 변동내역은 알기 어렵다. 보험계약마진 상각 스케줄도 1, 3, 5년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독회계공시에서 재무정보 요약사항 기술, 보험계약부채 및 가정 관련 사항이 추가되었다. 감독회계기준의 포트폴리오 구분에 따라 보험부채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회사 전체의 계리적 가정 변동내역을 보여주고, 보험계약마진 상각기간을 30년까지 좀 더 세분화였다.

또한, '보험금 예실차 비율',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등' 일반회계공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감독회계공시에서 좀 더 상세히 제시한다.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예외모형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내 감독기준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원칙모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시를 통해 계약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감독회계공시에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일반회계공시에 회계모형별·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보험부채 변동내역, 최적가정, 가정민감도를 동일하게 기술하였다. 원칙과 자율에 의해 기술하는 일반회계공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감독회계공시에서 보완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시에 대한 새로운 기준서인 IFRS18이 2027년 시행된다. IFRS18이 도입되면 영업손익은 비경상손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기존의 영업손익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또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자체 성과지표는 경영진이 정의하는 성과측정치가 되어 공식 재무보고 체계 내로 의무적으로 편입된다. IFRS17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회사 내부지표, 경영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공시되므로 회사 경영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사례는 유럽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공시 현황을 살펴본 후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인 보험회사인 아비바(Aviva)와 알리안츠(Allianz)의 회계 정책 및 대체성과지표(APM)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캐나다의 대표 보험회사인 매뉴라이프(Manulife)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 재무 성과 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유럽⁹⁾

가. 개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24년 10월 유럽경제지역(EEA) 내 16개 보험회사¹⁰⁾의 2023년 연결재무제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IFRS17(보험계약)과 IFRS9(금융상품)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포괄적 실태 점검이었다.

분석 결과, 유럽 보험회사들은 방대한 양의 공시 요구사항을 외형적으로 준수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내재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전환 효과'나 '회계 정책, 판단 및 추정'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각 보험회사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기준서의 문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상투적 공시 관행이 다수 발견된 점은 시급한 개선 과제로 지목되었다.

본 절에서는 ESMA가 지정한 핵심 분석 내용인 '회계 정책, 판단 및 추정'과 '대체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유럽 보험회사들의 공시 실태와 우수 사례를 살펴본다.

9) ESMA(202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10) ESMA가 선정한 16개 분석 대상 보험회사는 Vienna Insurance Group(오스트리아), Mandatum(핀란드), AXA, BNP Paribas, Société Générale(이상 프랑스), Allianz, Munich Re, Talanx(이상 독일), FBD(아일랜드), Intesa Sanpaolo, Generali(이상 이탈리아), ASR, NN Group(이상 네덜란드), Storebrand(노르웨이), PZU(폴란드), Mapfre(스페인)임. ESMA는 지리적 균형과 다양한 사업 라인(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등)을 고려하여 이들 회사를 선정함

나. 회계 정책, 판단 및 추정(Accounting policies, judgements and estimates)

IFRS17 체제에서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등 다양한 가정의 복합적 산물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나타난 숫자의 신뢰성은 회사가 적용한 가정과 판단 근거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ESMA는 이러한 ‘블랙박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10개 핵심 항목(계약의 분류, 통합수준, 회계모형, 기대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보험금융손익, 보험계약마진 상각, 보험취득현금흐름, 위험의 성격 및 범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1) 계약의 분류(Classification)

IFRS17 적용의 첫 단추는 해당 계약이 회계적으로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의적인 보험위험(Significant insurance risk)’의 이전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며, 투자요소가 강한 계약의 경우 ‘직접참가특성(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보유 여부에 따라 측정 모형이 달라진다. ESMA의 분석 결과, 계약의 분류 판단에 대해 절반 가량의 회사가 공시를 제공했으나, 상당수는 “유의적인 위험이 이전될 때 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는 기준서의 문구를 단순히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분석 대상 중 유일하게 정량적인 임계값을 공개하여 판단의 객관성을 입증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우수 사례로 꼽힌 PZU(폴란드)는 유의적 보험위험 판단 과정에 내재된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을 도입하였다. 동사는 주석을 통해 보험위험의 유의성 판단 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비교하는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시 지급보험금이 미발생 시 지급보험금보다 10% 이상 높을 경우에 한해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IFRS17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IFRS9(금융상품)을 적용한다는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내부 통제 기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처리 대상의 구분 논리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2) 통합수준(Level of Aggregation)

보험계약을 어떤 단위로 묶어서 측정하고 수익을 인식할 것인가는 손익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IFRS17은 원칙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 수준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이를 다시 발행 시기가 1년 이내인 연도별 집합(Annual Cohort)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기준서 도입 과정에서 세대 간 위험 공유가 일어나는 계약에 대해 연도별 집합 구분을 면제하는 옵션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Société Générale(프랑스)은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을 ‘상품 라인(저축성, 은퇴, 보장성 등)’과 ‘발행 국가’로 명확히 하고, 각 그룹 내에서 연도별 집합 면제 규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상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유로화 표시 펀드와 같이 자산운용 성과와 리스크가 서로 다른 세대의 계약자 간에 공유되는 저축성 생명보험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계약에 대해 연도별 집합을 구분하지 않은 논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또한, Vienna Insurance Group(오스트리아)은 상품이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럽의 건전성 감독 기준인 Solvency II의 포트폴리오 정의를 IFRS17에도 준용하였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 목적의 분류와 회계 목적의 분류 간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적용하는 손해보험 계약에 대해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한다.”는 판단 근거를 구체적인 상품 라인(자동차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별로 표기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높였다.

한편, ESMA의 분석 결과 전체 분석 대상의 56%가 연도별 집합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와 대상 상품을 명확히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 그룹 식별과 관련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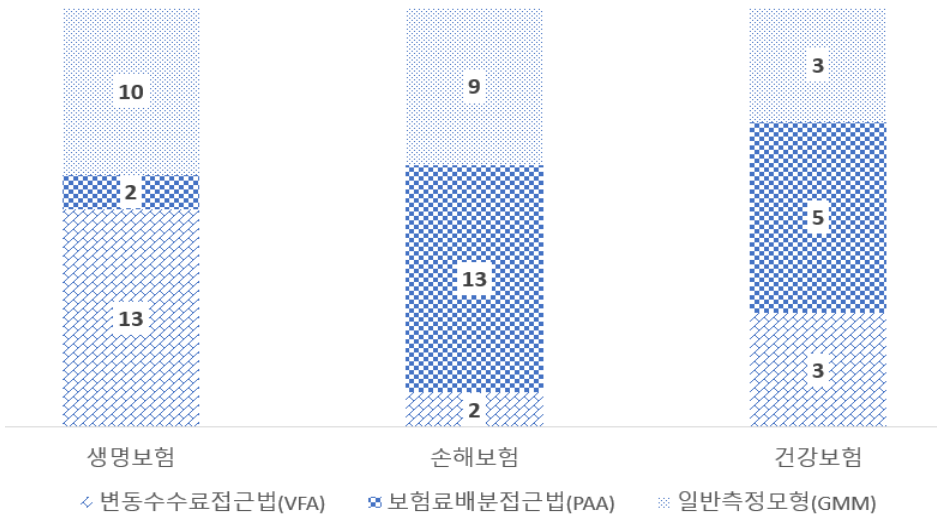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부담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회사는 절반(8개사)에 그쳤으며, 비손실부담계약이 향후 손실부담계약이 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근거는 단 5개사만이 공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했다. 또한, 유의적인 출재보험계약을 보유한 10개사 중에서도 단 4개사만이 출재 계약의 통합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공시 투명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회계모형(Measurement Model)

보험계약의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회계모형을 선택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목적 적합성을 높이는 핵심 절차이다. IFRS17은 일반모형(GMM), 변동수수료접근법(VFA),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규정하고 있다. ESMA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기 손해보험 상품만을 취급하는 1개사를 제외한 15개 분석 대상 회사(94%)가 이 세 가지 모형을 모두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라인별 적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생명보험 부문은 투자 성과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분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의 비중이 높아 VFA가 주류를 이루었다. 실제로 13개사가 VFA를 적용하였으며,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 등을 측정하기 위해 10개사가 GMM을 병행 사용하였다. 반면, 손해보험 부문은 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인 PAA가 지배적이었다. 13개사가 PAA를 적용하였으나, 장기 보장성 계약 등을 측정하기 위해 9개사가 GMM을 함께 운용하는 등 유연한 접근 방식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부문은 다른 상품 라인에 비해 측정 모형의 혼용 양상이 두드러졌다. 5개사가 PAA를 적용하였으나, GMM과 VFA를 적용한 회사도 각각 3개사로 나타나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회계모형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III-1〉 분석 대상 유럽 보험회사의 사업별 회계모형 사용 현황



자료: ESMA(2024)

4) 기대현금흐름(Expected Cash Flow)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보험부채 측정의 기초가 되는 단계이다. ESMA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분석 대상의 69%가 계약 경계 판단 및 이행현금흐름 추정치 결정에 대한 판단 근거를 공시하였으나, 그 구체성에는 회사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했다. 우수 공시 회사들은 가정의 불확실성을 ‘블랙박스’ 안에 남겨두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택했다.

AXA(프랑스)는 계약 경계 내에 포함되는 현금흐름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나열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실무적으로 이권이 발생할 수 있는 ‘중개인이 수취한 보험료(Premiums collected by intermediaries)’에 대해, 회사가 아직 현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별도의 금융자산(수취채권)이 아닌 보험계약의 경계 내 미래현금흐름으로 처리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공개하여 회계 처리의 모호성을 제거하였다.

Storebrand(노르웨이)는 해지율 가정 수립 시 통계적 모델링을 사용한다는 원론적 언급을 넘어, “확정급여형 연금 등 특정 상품군의 경우 최근의 저금리 등 시장 상황으로 인해 계약이전 시장이 비활성화되어 있어 해지율이 0%에 가깝다.”는 구체적인 정성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 시장 환경과 계리적 가정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Intesa Sanpaolo(이탈리아)는 현금흐름 추정 시 Solvency II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IFRS17의 요구사항(계약 경계, 세분화 수준 등)에 맞춰 어떻게 조정하였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규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PZU(폴란드)는 손해율, 사망률, 사업비 등 주요 가정별로 산출근거(과거 데이터, 전문가 판단 등)와 구체적인 적용 방식(생명표 조정 등)을 상세히 나열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였다.

다만, ESMA는 이러한 우수 사례에도 불구하고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에서 ‘재량권 행사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과 그 외의 변동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회사 특유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5) 할인율(Discount Rate)

할인율은 장기 부채가 많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다. IFRS17은 유동성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 산출을 요구하며, ESMA 분석 결과 대부

분의 회사(81%)는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사용한 회사는 12%에 불과했다.

할인율 산출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의 31%는 회사 전체에 단일한 통화별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나, 나머지 회사들은 상품, 포트폴리오 또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된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전체의 62%가 할인율 결정에 사용된 판단과 가정을 공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무위험 수익률의 출처(스왑 금리 등),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을 위한 참조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그리고 시장 데이터 관측이 가능한 기간과 보외법(Extrapolation) 적용 구간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수익률 곡선 자체를 공시한 비율은 94%로 매우 높았던 반면, 할인율의 핵심 구성요소인 '유동성 프리미엄(Illiquidity Premium)'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시한 회사는 25%에 그쳐, 정보의 상세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회사들의 구체적 공시 사례는 좋은 벤치마크가 된다. Talanx(독일)은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여 스왑 금리 등 기초 무위험 수익률 곡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여기서 유동성 프리미엄은 '그룹 자체 참조 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의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하며, 이 방식은 유럽 감독기준인 Solvency II의 변동성 조정(Volatility Adjustment) 산출 로직과 유사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규제 자본과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또한, 유로화(EUR)의 경우 최대 50년까지의 관측 가능한 시장 데이터를 사용하며, 그 이후 구간에 대해서는 스미스-윌슨(Smith-Wilson)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선도금리로 수렴하게 한다는 기술적 방법론까지 상세히 공개하였다.

나아가 AXA(프랑스)와 VIG(오스트리아)은 방법론적 서술을 넘어, 실제 적용된 유동성 프리미엄의 수치를 공개하여 정보 유용성을 극대화하였다. AXA는 유로, 달러, 파운드 등 주요 통화별로 적용된 유동성 프리미엄을 전년도와 비교한 표로 제시하였고, VIG는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등 주요 영업 국가별로 적용된 유동성 조정 폭을 구체적인 수치로 공시하였다. 이러한 수치 공개는 애널리스트 등 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할인율 수준이 적절한지, 경쟁사 대비 공격적인지 보수적인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정보로 평가 받는다.

한편, 단기 계약에 주로 적용되는 PAA와 관련해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할인) 여부에 대한 회계 정책 선택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IFRS17은 보험료 수취와 서비스 제공 시차

가 1년 이내인 경우 잔여보장부채를 할인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분석 대상의 38%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할인 미적용) 선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시기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생사고부채를 할인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해서는 19%의 회사가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의 회사(잔여보장부채의 경우 약 50%)가 이러한 선택권의 사용 여부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 공시의 불투명성이 지적되었다.

6)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인 위험조정(RA)은 회사의 위험 회피 성향을 반영한다. ESMA 분석 결과, 유럽 보험회사들은 주로 신뢰수준법(VaR, 56%)과 자본비용법(CoC, 37%)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산출 기법과 무관하게 분석 대상 모든 회사가 산출 결과에 상응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하여 비교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험조정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산 효과에 대해서는 56%의 회사만이 그 반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공시의 구체성 측면에서 회사 간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Talanx(독일)는 사업 부문의 특성에 따라 위험조정 산출 방식을 이원화하는 정교함을 보였다. 원수보험 부문에는 통계적 신뢰도가 높은 신뢰수준법(75%)을 적용하는 반면, 재보험 부문에는 자본비용법(Cost of Capital technique)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뢰수준법 적용 시 회사 간 분산 효과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나, 재보험 자회사인 Hannover Re에 한해서는 분산 효과를 인정한다는 예외 사항을 명확히 기술했다. 더불어, 신뢰수준 가정이 1%p 변동할 때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금액(약 2억 유로)으로 제시하는 정량적 민감도 분석을 포함하여, 위험조정 산출에 내재된 불확실성의 크기를 구체화하였다.

7) 보험금융손익(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의 변동분(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PL)에 모두 반영할지, 혹은 일부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배분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줄일지는 중요한 회계 정책적 선택이다. ESMA 분석 결과, 전체 분석 대상의 81%가 보험금융수익(비용)을 PL과 OCI로 배분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손익 안정화를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XA(프랑스)는 OCI 옵션 선택의 전략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당사는 보유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채 측면에서도 OCI 옵션을 적용함으로써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제한하고 자산·부채 매칭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AXA 역시 VFA 적용 시 기초 항목의 당기손익과 일치하는 금액을 보험금융손익(PL 인식분)으로 인식하여, 별도로 표시되는 항목들의 순액 효과가 '0'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8)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미래이익의 원천인 CSM을 당기수익으로 인식(상각)하는 속도는 회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를 결정짓는다. 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보장 단위(Coverage Units)'이며, 특히 투자 서비스와 보험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의 경우 두 서비스 간의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다.

ESMA의 분석 결과, CSM 상각과 관련된 공시 수준은 영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 분석 대상의 88%가 미래 CSM 상각 예상액을 공시하였으며, 대부분(12개사)은 이를 5년 단위 등의 기간별 구간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미래이익의 실현 패턴을 보여주었다. 또한, 75%의 회사가 보장 단위 결정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주로 위험보험금(Sum at risk), 보험가입금액(Sum insured), 또는 저축성 계약의 경우 운용자산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단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했다. CSM 상각 기간인 '보장 기간(Coverage period)'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한 회사는 38%에 그쳤으며, 특히 복합 상품에서 필수적인 '보험서비스와 투자 서비스 간의 상대적 가중치(Relative weighting)' 결정 근거를 공개한 회사는 19%에 불과했다. 아울러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적용 시 이익 인식 패턴의 왜곡(선수파 효과(Bow Wave effect)¹¹⁾)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정을 거쳤는지 설명한 비율 또한 19%로 매우 낮아, 해당 영역의 정보 불충분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Storebrand(노르웨이)는 투자요소가 있는 확정수익형 연금상품의 보장 단위 산정 시, 보험 보장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서비스도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인

11) 선수파 효과(Bow Wave Effect)란 IFRS17의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을 적용할 때, 회계적 가정과 실제 경제적 상황의 괴리로 인해 보험계약 만기 시점에 이익(CSM)이 기형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말함. 마치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뱃머리(Bow) 앞에 물결이 높게 솟구치는(Wave)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임

식하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동사는 CSM 상각을 위한 보장 단위를 결정할 때, 보험계약자 적립금을 기초로 하되 투자 수익 서비스와 보험서비스가 모두 제공되는 기간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CSM 상각 패턴이 실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패턴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AXA(프랑스)는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우 웨이브 효과’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보우 웨이브 효과’는 위험중립적 가정만을 사용하여 CSM을 상각할 경우, 기대 초과수익이 만기에 일시에 인식되어 이익이 급증하는 왜곡 현상을 말한다. AXA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장 단위 산정 시 실제 세계 가정(Real World assumptions)을 반영하여 보장 단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사용한 주식 기대수익률, 국채 금리 등의 구체적인 실제 세계 금리(Real World Rates)를 표로 공개하여 이익 인식 패턴의 합리성을 입증하였다.

9) 보험취득 현금흐름(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보험취득 현금흐름(신계약비 등)을 자산으로 인식한 후, 이를 상각하여 보험부채에 포함하는 시기에 대한 정보는 회사의 미래 비용 인식 구조와 이익 실현 패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ESMA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회사가 취득 현금흐름을 보험계약 그룹에 배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공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계약 위주인 보험료배분접근법(PAA) 적용 포트폴리오의 경우, 56%의 회사가 취득 현금흐름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택했고, 나머지 44%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산으로 인식한 회사 중 자산이 제거되어 비용화되는 예상 시기를 공시한 비율은 25%에 불과해, 전반적인 공시 투명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llianz(독일)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이 언제 상각되어 보험계약 측정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정량적으로 공시하여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동사는 손해보험과 생명·건강보험 부문으로 나누어, ‘1년 이내’, ‘1~2년’, ‘2~3년’ ... ‘5년 초과’ 등 구체적인 경과 기간별로 예상 상각 금액을 표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비용으로 실현될 금액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 정보를 제공하였다.

10) 위험의 성격 및 범위(Nature and extent of risks)

IFRS17은 위험 변수가 변할 때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이를 주석이 아닌 별도의 리스크 보고서에 기술하고 참조만 남기는 방식을 택해, ‘모든 필수 공시는 주석 내에 기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했다.

민감도 분석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의 88%가 위험 변수 변화에 따른 정량적 영향을 공시하였다. 주로 공시된 변수는 이자율(12개사), 주가(10개사), 사업비(8개사), 해지율(7개사) 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 변화가 정보 이용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핵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회사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한 회사는 44%(7개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한 회사는 38%(6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회사들은 재무제표 상의 수치 대신 지급여력비율 등 Solvency II 관련 지표(38%)나 CSM에 미치는 영향만을 공시하는 등 재무정보로서의 유용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표 III-1〉 분석 대상 유럽 보험회사의 가정민감도 분석 및 재무제표 영향 공시 현황

구분	공개 변수	공개 회사 수	
위험 민감도 분석 공개 현황	보험위험 민감도 (전체의 75%)	사업비	8
		해약률	7
		사망률	6
		최종 손해율	2
		청구 금액	2
		기타(예: 장해, 자연재해 등)	5
	시장위험 민감도 (전체의 81%)	금리	12
		주식 시장	10
		신용 스프레드(국채 및 회사채)	7
		부동산 가격	5

〈표 III-1〉 계속

구분		공개 변수	공개 회사 수
위험 변수 변화에 따른 재무제표 영향	솔벤시 II 지표 (전체의 38%)	가용자본	4
		솔벤시 II 비율	4
		지급여력기준자본	2
	기타 비(非) IFRS 지표(전체의 6%)	지분의 경제적 가치	3
	시장위험 민감도 (전체의 81%)	당기순이익/세전이익	7
		자본	6
		보험서비스마진	3
		순이자손익, 보험부채, 투자자산	5

자료: ESMA(2024)

아래 〈표 III-2〉는 앞서 살펴본 ESMA의 10개 핵심 분석 항목과 항목별 주요 이슈 및 우수 공시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표 III-2〉 ESMA의 10개 핵심 분석 항목 및 우수 공시 사례

분석 항목	주요 이슈	우수 공시 사례
계약 분류	• 유의적 보험위험 판단 기준의 모호성	• PZU: 10% 차이 발생 시 유의적 위험 간주(정량 기준 제시)
통합수준	• 연도별 집합(Annual Cohort) 면제 근거	• Société Générale: 펀드 운용 리스크 공유 등 경제적 실질 설명
회계모형	• 상품 특성별 회계모형 (GMM, VFA, PAA) 혼용	• 대다수 회사가 상품 특성에 맞춰 혼용 적용
기대현금흐름	• 계약 경계 및 해지율 가정의 구체성	• AXA: 미입금 보험료 처리 기준 명시 • Storebrand: 시장 상황 반영한 해지율 '0%' 가정 설명
할인율	•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 방식 및 수치 공개	• Talanx: 참조 포트폴리오 및 산출 로직 상세 설명 • AXA/VIG: 통화별·국가별 유동성 프리미엄 수치 공개
위험조정	• 분산 효과 반영 여부 및 산출 기법	• Talanx: 원수보험/재보험 이원화 적용, 민감도 금액 제시
금융수익 (비용)	• PL과 OCI 배분 정책의 논리성	• AXA: FVOCI와 OCI 매칭 전략 설명

〈표 III-2〉 계속

분석 항목	주요 이슈	우수 공시 사례
CSM 상각	• 보장 단위 가중치 및 이익 인식 패턴 조정	• Storebrand: 투자/보험서비스 가중치 적용 설명 • AXA: 선수파 효과 방지를 위한 실제 기대수익 반영
보험취득 현금흐름	• 자산화된 비용의 상각 예상 시기	• Allianz: 경과 기간별 상각 예상액 정량적 공시
위험의 성격 및 범위	• 민감도 분석의 대상 및 표시 위치	• 당기손익(44%) 및 자본(38%) 영향 공시 미흡, 주식 내 직접 기술 권고

자료: ESMA(2024)을 바탕으로 정리함

다. 대체 성과지표(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

IFRS17 도입으로 보험수익에서 저축 보험료가 제외되는 등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경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체 성과지표(APM)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ESMA의 분석 결과, 분석 대상 회사의 69%가 IFRS17 도입에 맞춰 새로운 APM을 도입하거나 기존 지표를 수정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주요 지표로는 ‘총 사업 규모(Total business volume)’, ‘건강보험 부문 수익(Revenue of the Health Pillar/Area)’, ‘비할인 손해율(Undiscounted loss ratio)’, ‘비할인 합산비율(Undiscounted combined operating ratio)’ 및 ‘원수보험료(Gross written premium)’ 등이 포함되었다.

긍정적인 점은 82%의 회사가 이러한 APM과 가장 유사한 IFRS 재무제표 항목 간의 조정 내역을 충실히 제공하여, 정보 이용자가 비재무적 지표와 재무적 지표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는 새로운 지표의 정의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새롭게 도입되거나 수정된 모든 APM에 대해 전년도 비교 수치를 함께 공시함으로써 시계열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영국(Aviva)

가. 개요

영국 보험그룹인 Aviva plc(이하 '아비바'라 함)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을 아우르는 복합 금융 그룹으로서, 영국 내 시장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영국의 IFRS 공시 관행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힌다. 아비바의 2024년 연례보고서는 전략 보고서, 지배구조 보고서, 그리고 IFRS 재무제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보고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본 사례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아비바가 복잡한 IFRS17(보험계약) 및 IFRS9(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 규제 준수를 넘어 정보 이용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한 공시 전략이다. 아비바는 재무제표 본문에 앞서 회계 정책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보의 맥락을 제공하고, IFRS 수치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다양한 대체 성과지표(APM)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회계 정책(Accounting Policies)

아비바의 공시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통상적으로 재무제표 뒤에 주석(Notes)에 배치되던 회계 정책 섹션을 연결재무제표 본문보다 앞서 배치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 이용자가 방대한 재무 수치를 접하기 전에, 해당 수치가 산출된 논리적 근거와 가정을 먼저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정보 배열 전략으로 해석된다.

아비바는 회계 정책 섹션 내에 '중요한 회계 정책 및 추정의 사용(Critical accounting policies and the use of estimates)'이라는 별도 항목을 두어 기술하고 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경영진의 주관적 판단이나 미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험 및 투자 계약 부채의 평가, 비유동성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등을 핵심 판단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상세한 리스크 수치를 다루는 재무제표 주석으로 넘어가기 전, 그 판단의 성격과 중요성을 정책 단계에서부터 강조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비바는 방대한 회계 정책 중 보험업의 핵심인 보험계약(IFRS17)과 금융상품(IFRS9) 관련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서술한다. 먼저 보험계약의 경우, 상품 특성에 따른 측정 모형

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장기 보장성 상품에는 일반모형(GMM)을, 1년 미만 단기 상품에는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적용한다. 특히 영국 시장의 특성상 중요한 유배당(With-profits) 계약에 대해서는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을 적용하며, 이때 기초 항목의 성과가 보험계약마진(CSM)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기술하여 영국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의 경우, 자산운용업을 겸영하는 그룹 특성을 반영하여 구조화 기업(Structured Entities)에 대한 연결 기준을 상세히 다룬다. 투자 펀드 등 다양한 투자 기구에 대해 회사가 보유한 지분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과 변동 이익에 대한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비바는 회계 정책에서 향후 도입될 신규 기준서인 'IFRS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을 '아직 시행되지 않은 기준(Standards issued but not yet effective)'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비바는 IFRS18 도입 시 손익계산서에 추가적인 중간합계(영업손익 등) 표시가 요구되고 경영진 성과지표(MPM)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이는 현재 그룹이 핵심적으로 활용 중인 '조정 영업이익' 중심의 성과 관리체계가 향후 변화할 회계 기준과 높은 정합성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 아비바가 공시한 주요 회계 정책 항목들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I-3〉 주요 회계 정책(Aviva)

구분	주요 정책 항목 및 핵심 내용
일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기준(Basis of preparation): 영국 채택 국제회계기준(UK-adopted IAS) 준수 및 계속기업 가정 외화 환산(Foreign currency translation):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의 구분 및 환산 차이 인식 기준
연결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Consolidation): 자회사 및 구조화 기업(펀드 등)에 대한 실질 지배력 판단 기준 상품 분류(Product classification): 유의적인 보험위험 이전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IFRS17)과 투자 계약(IFRS9)의 구분
자산 및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 GMM, VFA, PAA 측정 모형 적용 및 CSM, 위험조정(RA) 산출 방법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SPPI 테스트에 따른 분류, 공정가치 측정(FVTPL/FVOCI), 기대신용손실(ECL) 인식 재보험 자산(Reinsurance assets): 출재 보험료 배분 및 회수 가능성 평가

〈표 III-3〉 계속

구분	주요 정책 항목 및 핵심 내용
자산 및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Pension obligations): 확정급여형(DB) 부채의 보험수리적 평가 및 잉여금(Surplus) 인식 제한
수익 및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 인식(Revenue): 자산운용 수수료 등 비보험서비스 수익의 기간별 인식 기준(IFRS15) 법인세(Income taxes): 당기 법인세 및 미래 세율 변동을 반영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측정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영업권(Goodwill) 및 소프트웨어 등의 상각 및 손상 검사 투자 부동산(Investment property): 공정가치 모형 적용 및 평가 기법 유형자산(Property and equipment): 자가 사용 부동산 등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 모형
자본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당부채(Provisions): 구조조정 등 의무 발생 시점의 부채 인식 자본금(Share capital): 보통주 및 우선주 분류, 배당금 지급 기준

자료: Aviva(2025)을 바탕으로 정리함

다. 대체 성과지표(APM)

아비바는 IFRS에 따른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대체 성과지표(APM)를 적극 활용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소통한다. 이는 IFRS 당기순이익이 단기적인 시장 금리 변동이나 일회성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 경영진이 내부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시장에 공유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아비바는 이러한 APM 지표들을 경영진의 보수 산정 및 인센티브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아비바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그룹 조정 영업이익(Group Adjusted Operating Profit)이다. 이는 IFRS 당기손익에서 투자자산의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기업 인수 및 매각 관련 비용, 무형자산 상각비 등 비영업적 요소를 제거한 수치다. 아비바는 이를 통해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초 이익 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무제표 본문에 포함된 ‘조정 내역표(Reconciliation table)’를 통해 IFRS 당기순이익과 조정 영업이익 간의 차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정 내역’이란 단순히 하나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변동성, 경제적 가정 변경 효과, 구조조정 비용 등 세부 항목별로 조정 금액을 상세히 나열한 표를 지칭하며, 이를 통해 자의적인 성과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외 아비바가 활용하는 주요 대체 성과지표들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I-4〉 주요 대체 성과지표(Aviva)

구분	주요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및 활용 목적
수익성	그룹 조정 영업이익 (Group Adjusted Operating Profit)	• 비경상적 요인과 시장 변동성을 제거한 핵심 영업 성과지표
	운영 주당순이익 (Operating EPS)	• 조정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산출한 주당 순이익으로, 해당 정책의 기준이 됨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 주주 자본 대비 IFRS 당기순이익의 비율
자본 및 현금	Solvency II 주주 커버리지(SolvencyII Shareholder Cover Ratio)	• 규제 자본 요구량(SCR) 대비 자기 자본(Own Funds)의 비율로 재무 건전성 핵심 척도
	운영 자본 창출액 (Operating Capital Generation)	• 신계약 및 기존 계약 관리를 통해 창출된 잉여 자본의 규모
	현금 송금액 (Cash Remittances)	• 자회사가 지주사로 실제 송금한 현금 총액으로, 해당 지급 능력의 원천
효율성	합산비율 (Combined Operating Ratio)	• 손해보험 부문의(손해율+사업비율) 할인 및 비할인 기준 모두 제시
	통제 가능 비용 (Controllable Costs)	• 경영진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운영 비용의 증감 추이
성장성	신계약 가치 (VNB / PVNBP)	• 신계약 보험료의 현재가치(PVNBP) 및 신계약 가치(VNB)로 미래 성장 잠재력 측정
	연납화 보험료 (Annual Premium Equivalent)	• 일시납 보험료의 10%와 연납 보험료를 합산한 전통적인 매출 지표
	자산관리 순유입액 (Wealth Net Flows)	• 자산운용 부문에서 신규로 유입된 자금에서 유출된 자금을 뺀 순증가액
가치 평가	주당 순자산가치 (NAV per share)	• 주식 1주당 귀속되는 순자산의 가치

자료: Aviva(2025)을 바탕으로 정리함

3. 독일(Allianz)

가. 개요

Allianz Group(이하 '알리안츠'라 함)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보험 및 자산운용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이다. 독일 보험산업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데, 이러한 기조는 알리안츠의 2024년 연례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알리안츠의 2024년 연례보고서는 '그룹 경영 보고서(Group Management Report)'와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하나의 문서로 결합한 방대한 구성을 띠고 있다. 이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주주에게 포괄적인 기업 가치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대한 정보량 속에서 알리안츠의 공시 전략은 '정보의 계층화'로 요약된다.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필수 정보를 충실히 다루되, 투자자가 분석하기 복잡한 대체 성과지표(APM) 정보는 별도의 상세 문서로 분리하여 제공한다. 나아가 엑셀 데이터 시트와 시각화된 그래프를 제공하는 웹사이트¹²⁾를 구축하여, 정보 이용자가 방대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시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나. 회계 정책(Accounting Policies)

영국의 아비바가 회계 정책을 재무제표 앞단에 전진 배치한 것과 달리, 알리안츠는 재무제표 주석(Notes) 내에 회계 정책을 통합하여 서술하는 실무적인 방식을 택했다. 즉, 별도의 '회계 정책' 챕터를 두는 대신, 작성 기준(Note 2)을 시작으로 보험 영업(Note 5), 금융 영업(Note 36 등) 등 각 계정과목 주석 안에서 해당 수치가 산출된 논리와 정책을 함께 설명한다. 이는 정보 이용자가 재무 수치를 확인할 때, 그 수치에 적용된 측정 원칙과 경영진의 판단을 문맥 안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알리안츠 회계 정책 서술의 핵심은 '회계적 불일치(Accounting Mismatch)의 해소'이다. 금융상품(IFRS9) 정책을 설명함에 있어, 단순히 자산 분류 기준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보

12) Allianz Group 홈페이지

험 부채(IFRS17)를 뒷받침하는 자산의 평가 손익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경영진이 ‘공정가치 선택권(Fair Value Option)’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했는지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이는 자산과 부채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 관리하는 알리안츠의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철학이 회계 정책 서술에 깊이 반영된 결과다.

보험계약(IFRS17)과 관련해서는 독일 생명보험 시장의 주력인 유배당 상품(Participating business)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을 적용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특히 기초 항목(Underlying items)의 공정가치 변동이 보험계약마진(CSM)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함으로써, 주주와 계약자 간의 이익 배분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알리안츠의 2024년 연례보고서 주석에서 확인되는 주요 회계 정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5〉 주요 회계 정책(Allianz)

구분	주요 정책 항목 및 핵심 내용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기준: IFRS 준수 여부 및 연결 범위 결정 시 지배력 판단 기준과 구조화 기업 포함 원칙 서술
보험영업 (Insurance Ope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모형: 유배당 상품에 대한 VFA 적용 및 일반 상품에 대한 GMM/PAA 적용 기준 통합수준: 리스크 상호화 효과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및 연단위 집합 구성 원칙
금융영업 (Financial Ope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분류: 사업 모형(보유 목적) 및 현금흐름 특성(SPPI)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 공정가치 측정: 시장 가격이 없는 대체 투자 자산 등에 대한 내부 평가 모형 및 투입 변수(Level 3) 가정
기타 (Other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권: 현금창출단위(CGU) 배분 기준 및 연간 손상 검사(Impairment test) 시 적용한 할인율, 성장률 등 주요 경제적 가정

자료: Allianz(2025a)을 바탕으로 정리함

다. 대체 성과지표(APM)

알리안츠는 IFRS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의 성장성과 이익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 대체 성과지표(APM)를 적극 활용한다. 다만, 연례보고서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지표 위주로 본문에 서술하고, 구체적인 산출 로직과 IFRS 수치와의 상세 조정 내역 등은 별도로 발간되는 ‘대체 성과지표 상세 문서(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를 통해 제공하여 전문적인 분석을 지원한다.

알리안츠가 성과지표 서술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총 비즈니스 볼륨’이다. IFRS상 보험수익은 저축성 보험료 등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인식하므로 대형 보험회사의 실제 외형을 축소해서 보여줄 여지가 있다. 이에 알리안츠는 전통적인 수입보험료와 자산운용 수익과 등을 합산한 이 지표를 최상단에 배치하여, 그룹의 전체적인 시장 지배력과 성장세를 IFRS 수치보다 우선하여 강조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영업이익’을 가장 강조한다. 이는 IFRS 세전 이익에서 시장 변동성, 구조조정 비용, 무형자산 상각비 등 비경상적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경영진의 성과평가와 목표 설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별도 보고서에서는 이 영업이익이 산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조정 내역표(Reconciliation Table)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가 이익의 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알리안츠가 별도 문서 등을 통해 관리하고 공시하는 주요 대체 성과지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I-6〉 주요 대체 성과지표(Allianz)

구분	주요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및 활용 목적
성장성	총 비즈니스 볼륨 (Total Business Volume)	• IFRS 매출에서 제외된 저축성 보험료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외형 성장 지표
	내재 성장률 (Internal Growth)	• 환율 변동 및 인수합병(M&A) 효과를 제거한 순수한 자체 매출 성장률
수익성	영업이익 (Operating Profit)	• 비경상적 요인을 조정한 핵심 이익 지표이자 경영 관리의 기준점
	주주 귀속 핵심 당기순이익 (Shareholders' Core Net Income)	• 배당 정책의 기준이 되는 주주 몫의 조정 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 (RoE)	• 평균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이익(또는 핵심 순이익)의 비율로 자본 효율성 측정
효율성	합산비율 (Combined Ratio)	• 손해보험 부분의 수익성 지표(손해율+사업비율). 100% 하회 시 영업 흑자 의미
	신계약 마진 (New Business Margin)	• 신계약 가치(VNB)를 신계약 매출 현재가(PVNB)로 나눈 생명보험 수익성 지표
건전성	Solvency II 자본비율 (Solvency II Capitalization Ratio)	• 유럽 건전성 규제에 따른 요구 자본(SCR) 대비 가용 자본(Eligible Own Funds)의 비율

자료: Allianz(2025b)을 바탕으로 정리함

4. 캐나다(Manulife)

가. 개요

캐나다의 대표적인 보험회사인 Manulife(이하 '매뉴라이프'라 함)는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논의 및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보고서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 재무 성과 등을 설명한다. 단순한 재무제표 설명이 아니라 숫자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는 경영진의 해설서 역할을 한다.

나. 회사 전략

매뉴라이프는 회사 전략의 우선순위로 ① 승리하는 팀과 문화 ②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③ 고객의 건강, 자산 및 장수 지원 ④ AI 기반 조직 ⑤ 탁월한 판매채널을 제시하며 각각의 목적과 2025년 성과를 제시한다.

단순히 재무적 성과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략에 따른 성과를 논의한다.

〈표 III-7〉 전략적 우선순위(Manulife)

전략	목적	2025년 성과
승리하는 팀과 문화 (Winning Team and Culture)	고객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고 차세대 역량에 투자하여 인재 유치 경쟁력을 확보함	6년 연속 갤럽(Gallup) 기준 직원 몰입도 상위 25% 달성, TIME지 선정 '2025 세계 최고의 기업' 및 Forbes '세계 최고의 직장' 6년 연속 선정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Diversified Business Portfolio)	유기적/비유기적 성장을 통해 균형 잡힌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고성장/고수익 사업군으로 자본을 집중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Mahindra와의 50:50 합작법인(JV) 설립 합의, 미국 사모금융 운용사인 Comvest Credit Partners 인수(75% 지분)
고객의 건강, 부, 장수 지원 (Empowering Customer Health, Wealth, and Longevity)	고령화와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장수(Longevity) 경제의 핵심 파트너로 진화함	2030년까지 3.5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며 '매뉴라이프 장수 연구소' 설립, 캐나다 및 미국 내 다중암 조기 검진(Galleri) 서비스 확대

〈표 III-7〉 계속

전략	목적	2025년 성과
AI 기반 조직 (AI-powered Organization)	AI를 운영 모델 전반에 내재화하여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운영 생산성을 극대화함	91개의 AI 유스케이스 운영, Evident AI 보험 지수에서 글로벌 생명보험사 중 1위 달성
탁월한 판매 채널 (Superior Distribution)	기술 기반의 영업 지원을 통해 고객의 구매 마찰을 줄이고 채널 파트너의 성장을 도모함	아시아 지역 MDRT 회원 수 23% 증가, 필리핀 Chinabank와의 방카슈랑스 파트너십을 2039년까지 연장

자료: Manulife(2025)

다. 재무 성과

재무 성과는 당기순이익 외에 핵심 자기자본이익률(Core ROE), 희석 핵심주당순이익(Diluted Core EPS), 사업비율, 신계약 CSM 성장률, CSM 잔액 성장률, 배당성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Core ROE는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큰 항목(시장변동성, 일회성 비용 등)을 제외하고 보험 본연의 영업과 안정적인 투자 수익만을 반영한 핵심이익(Core earnings)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회사의 실질적인 이익 창출능력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Diluted Core EPS는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보통주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보통주들(주식매수선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실제로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지표이다. 따라서 Diluted Core EPS는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 반영하였으므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성과지표가 된다.

그 외 사업비율, 신계약 CSM 성장률, CSM 잔액 성장률, 배당성향에 대한 현재 성과와 중기 목표를 제시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다.

〈표 III-8〉 주요 성과지표 (Manulife)

항목	2025	2024	목표	
			2027	중기
핵심 ROE	16.5%	16.2%	18%+	-
희석 핵심EPS 성장률	8%	10%	-	10~12%
사업비율	44.8%	44.8%	-	45% 미만
신계약 CSM 성장률	28%	32%	-	15%
CSM 잔액 성장률	16%	3%	-	8~10%
배당성향	42%	42%	-	35~45%

자료: Manulife(2025)

5. 소결

가. 유럽

ESMA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공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투적인 공시를 지양하고 회사 특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준서의 문구를 단순 반복하는 것은 규정 준수의 모양새는 갖출 수 있으나 정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ESMA는 앞서 언급한 Talanx(독일)나 AXA(프랑스)의 사례처럼 할인율 산출 시 사용한 유동성 프리미엄의 구체적 산출 방식이나 수치, 위험조정 산출 시 고려한 분산 효과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회계 수치의 산출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민감도 분석의 실질적 유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ESMA는 공정가치법(FVA)을 적용하여 전환 시점의 자본을 산출한 경우, 중요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화가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이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험 변수 변화가 내부 관리 지표(CSM, 지급여력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의 직접적 관심사인 당기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셋째, 핵심 판단 근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CSM 상각은 당기 이익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보장 단위 결정 시 투자 서비스와 보험서비스의 상대적 가중치 결정 근거,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적용 시 보우 웨이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한 실제 기대수의 가정 등 이익 인식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판단과 가정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넷째, 모든 공시 정보는 재무제표 주석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진 검토보고서나 별도의 리스크 보고서에 핵심 정보를 기술하고 주석에는 참조만 남기는 방식은 정보 접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IFRS17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필수 공시 사항은 감사받은 재무제표 주석 내에 직접 기술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체 성과지표(APM)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성과지표를 사용할 경우 IFRS 공식 계정 과목과의 조정 내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해당 지표가 경영진에게 왜 유용한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무엇보다 APM을 IFRS 지표보다 더 부각시켜 표시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나. 영국

영국 아비바의 공시 사례는 회계 정책의 유용성, 정교한 성과지표 관리체계, IFRS18 도입에 따른 선제적 공시 전략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회계 정책을 단순한 규정의 나열이 아닌 기업의 특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아비바는 회계 정책 내에 중요 판단 영역을 별도로 기술하고, 비즈니스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서술함으로써 정보의 유용성을 높였다. 이는 천편일률적인 정책 서술을 지양하고 기업 고유의 회계적 판단 근거를 충실히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재무 성과의 변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교한 성과지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IFRS17 도입으로 손익 변동성이 확대된 환경에서, 아비바와 같이 실질 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대체 성과지표(APM)를 정립하고 공식적인 회계 수치와의 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미래 회계 기준인 IFRS18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 공시 전략이 요구된다. 아비바는 회계 정책에서 향후 도입될 IFRS18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현재 수행 중인 '조정 영업이익'과 '조정 내역' 공시가 향후 IFRS18이 요구할 '경영진 성과지표' 규제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독일

독일 알리안츠의 사례는 공시 정보의 형식과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회계 정책의 내실화와 리스크 연계다. 별도의 섹션이 없더라도 주석 내에서 자산-부채 매칭(ALM)이나 상품 특성에 맞는 측정 모델 적용 근거를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회계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보 이용 편의성의 극대화다. 알리안츠는 단순히 보고서를 PDF로 게시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관계(IR)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투자자들은 이곳에서 분기별 재무 데이터를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즉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성과 추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라. 캐나다

캐나다 매뉴라이프는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뿐만 아니라 '경영진 논의 및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이라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한다. 단순히 수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회사 전략의 우선순위를 먼저 설명한다.

이후 재무 성과를 회계장부상 수치가 아니라 보험 본연의 핵심 이익, 보수적으로 산정한 회석된 주주 이익, 사업비율 등을 통해 회사의 실질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회사의 성과를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IV

국내외 보험회사 공시 비교 분석

1. 개요

앞 장에서는 국내 공시 현황과 해외 공시 사례를 각각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실제 국내 보험회사 공시와 해외 보험회사 공시를 함께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을 위해 국내 대형 생명보험 A사와 글로벌 공시 표준을 제시하는 Aviva Life & Pensions UK(이하 '아비바생명'이라 함)를 대상 회사로 선정하였다.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장기 보험부채와 변액보험 등 복잡한 상품 구조에 대한 회계 정책 공시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아비바생명은 영국 및 유럽 시장의 선진 공시 체계를 운영하며 대체 성과지표(APM)를 통해 투자자와 소통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에 대한 비교 분석은 국내 공시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틀은 앞서 III장에서 ESMA가 유럽 보험회사의 공시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핵심 회계 정책 항목(계약 분류, 회계모형, 기대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위험 성격·민감도)을 중심으로 비교·평가한다. 특히 전문가들이 강조한 '원인과 영향의 연계성', '민감도 공시의 실효성' 등의 이슈를 최대한 감안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공시가 단순한 기준서 준수를 넘어 시장 규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국내외 보험회사의 공시 비교 분석

국내 생명보험 A사와 아비바생명은 공시 문서(사업보고서/연례보고서)의 구성 체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A사의 사업보고서는 표준적인 서식에 따라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회계 정책은 재무제표의 하위 항목인 '주석' 내에 수록되어 기술된다.

반면, 아비바생명의 연례보고서는 전략 보고서(Strategic report), 이사보고서(Directors' report), 독립 감사 보고서(Independent auditors' report), 회계 정책(Accounting poli-

cies)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회계 정책(Accounting policies)은 재무제표 주석의 하위 항목이 아닌 재무제표 주석과 동등한 별도의 독립된 절로 분리하여 배치함으로써 정보 이용자가 복잡한 수치를 접하기 전 산출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국내 A사와 아비바생명의 2024년 사업보고서/연례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ESMA가 제시한 10대 핵심 회계 정책 항목을 범주화시켜 비교·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의 정의 및 측정 단위(계약 분류, 회계모형)

양사는 보험계약의 본질적 특성에 맞춰 측정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으나 공시 정보의 구체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계약 분류와 관련하여 국내 A사는 계약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사건 발생 시 지급되는 급부가 미발생 시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경우를 보험위험 인수로 정의하며, 위험 이전이 없는 무배당 퇴직보험 등은 재량적 참가특성이 없는 투자계약(IFRS9)으로 명확히 분류한다.

아비바생명은 법적 형식보다 계약의 실질을 중시하여 분류를 수행한다. 보험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추가적인 급부가 유의적인 시나리오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을 엄격히 구분하며,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은 IFRS9에 따라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측정 모델 측면에서 국내 A사는 유의적인 보험위험 유무에 따라 IFRS17 적용 대상을 분류하며 일반모형(GMM)과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을 병행한다. 아비바생명은 벌크 구매 연금(BPA), 보장성 보험, 연금 수령 조건이 확정된 일부 유배당 계약 등에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며, 유배당 투자계약 및 보험위험이 유의적인 유배당·변액 보험 등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체계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표 IV-1〉 국내 A사와 아비바생명의 계약 정의 및 측정 단위 비교

구분	국내 A사	아비바생명
계약 분류 기준	실질적 권리·의무에 기초한 위험 판단	법적 형식보다 계약의 실질(Substance) 중시
회계모형 적용	GMM 및 VFA 병행 적용 공시	상품군별 전략에 기반한 모델 적용 논리 서술

자료: 국내 A사(2025), 2024년 사업보고서; Aviva Life & Pensions UK(2025)

나. 부채 측정의 핵심 가정(기대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 산출 시 국내 A사는 최근 5년간의 경험 통계를 기초로 위험률, 해약률, 사업 비율 등 주요 계리적 가정을 상품군 및 판매 채널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특히 초기 해약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6회차 단기 경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정교화한다.

아비바생명명은 사망률, 장수 위험(Longevity), 유지율(Persistency) 등 보험사건 발생에 관한 최적 가정(Best Estimate)을 적용한다. 연금 부채 비중이 높은 비즈니스 구조를 고려하여 가정 변경이 재무 성과와 리스크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형으로 상세히 공시하여 정보 유용성을 제고한다.

할인율 산출 시 국내 A사는 무위험 수익률 곡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기본 체계로 운영한다. 여기서 1,000개의 금리시나리오는 상향식 방법론 내에서 금리 변동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활용되는 확률론적 측정 도구다.

반면, 아비바생명명은 부채 특성에 따라 방법론을 이원화한다. 일반 계약에는 상향식을 적용하되, 자산-부채 매칭이 중요한 연금보험(Annuities) 부채에는 참조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기반한 하향식(Top-down)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위험조정(RA) 신뢰수준 역시 국내 A사는 감독회계 기준인 75%를 적용하는 반면 아비바생명은 자사의 리스크 감내 수준인 68%를 적용하는 차이를 보인다.

〈표 IV-2〉 국내 A사와 아비바생명의 부채 측정 핵심 가정 비교

구분	국내 A사	아비바생명
기대현금흐름	경험 통계 기반 최적 가정 및 보장 단위 산정 공시	가정 변경이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위주의 서술
할인율 산출	Bottom-up 적용	부채 특성에 따른 Top-down 방식 등 정교한 기술
위험조정(RA)	신뢰수준법 적용 원칙 및 분산 효과 서술	신뢰수준법 기반의 상각 현황 및 리스크 전략 연계

자료: 국내 A사(2025), 2024년 사업보고서; Aviva Life & Pensions UK(2025)

다. 리스크 공시의 실효성(위험의 성격 및 민감도)

리스크 관련 공시에서 국내 A사와 아비바생명(ABN AMRO)은 위험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에서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내 A사는 위험의 성격을 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운영위험으로 범주화하여 관리한다. 보험위험 측면에서는 사망률($\pm 3.27\%$), 사망 위험률($\pm 3.40\%$), 해지율($\pm 9.16\%$), 사업비율($\pm 2.62\%$)을 핵심 변수로 설정하고, 각 변수의 변동이 보험계약마진 및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표준화된 틀 안에서 공시한다. 또한 시장위험에 대해서는 환율(± 100 원) 및 금리(± 100 bp), 그리고 주가 변동($\pm 10\%$)에 따른 민감도뿐만 아니라,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통해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재무적 완충력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는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하여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정보 이용자에게 증명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아비바생명은 위험의 성격을 설명할 때 경영진의 판단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결합한 서사적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아비바생명은 금리(Market interest rates: ± 100 bps, Corporate bond spread: ± 50 bps), 주가변동($\pm 10\%$), 부동산($\pm 10\%$) 등 시장 변수뿐만 아니라, 사업비율(+10%), 해지율(+10%), 사망률($\pm 2\%$) 등 보험 변수가 보험계약마진 및 당기손익뿐만 아니라 투자자산 손익(Investment P&L), 세전 총이익(Total Profit Before Tax), 세후 자본(Shareholder's Equity)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리하여 제시한다.

특히 아비바생명은 민감도 분석 결과에서 리스크 발생 시 경영진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와 그에 따른 상쇄 효과를 함께 서술하여 공시의 실질적인 예측 가치를 높인다. 또한, 국내 A사가 주로 보험계약마진 및 당기손익의 변동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아비바생명은 시장 및 보험 변수 변동이 투자자산 손익, 세전 총이익, 세후 자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시함으로써 시장 및 보험위험이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 구조에 어떠한 경로로 작용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다.

〈표 IV-3〉 국내 A사와 아비바생명의 리스크 공시 비교

구분	국내 A사	아비바생명
공시 스타일	규제 중심의 표준화된 범주화 (Standardized)	경영진 판단 중심의 서사적 공시(Narrative)
위험의 성격 정의	보험,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위험으로 분류	리스크와 전략적 대응 방안을 결합하여 설명
주요 보험 변수	사망률($\pm 3.27\%$), 사망 외 위험률($\pm 3.40\%$), 해지율($\pm 9.16\%$), 사업비율($\pm 2.62\%$)	사업비율(+10%), 해지율(+10%), 사망률($\pm 2\%$)
주요 시장 변수	환율(± 100 원), 금리(± 100 bp), 주가 변동($\pm 10\%$)	금리(± 100 bp), 회사채 스프레드(± 50 bp), 주가($\pm 10\%$), 부동산($\pm 10\%$)
민감도 측정 대상	보험계약마진, 당기손익	보험계약마진, 당기손익, 투자자산 손익, 세전 총이익, 세후 주주지분(자본)
주요 특징 및 기법	위기상황분석을 통한 재무 완충력 입증	리스크 발생 시 경영진 대응 조치 및 상쇄 효과 명시
공시의 주된 목적	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및 재무적 안정성 증명	실질적 예측 가치 제고 및 장기 수익 구조 경로 파악

자료: 국내 A사(2025), 2024년 사업보고서; Aviva Life & Pensions UK(2025)

라. 대체 성과지표

대체 성과지표(APM) 활용 측면에서 양사는 상이한 공시 전략을 취한다. 국내 A사는 지급 여력비율(K-ICS) 등 법정 건전성 지표와 표준화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국내 A사의 공시 자료에는 별도의 대체 성과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비바생명은 전략 보고서(Strategic report)를 통해 회계적 수치를 보완하는 핵심 지표를 적극적으로 공시한다. '운영 자본 창출(Operating Capital Generation; OCG)'은 사업 운영을 통해 창출된 유기적 자본의 양을 나타낸다. 경영진은 이 지표를 활용하여 회사의 견고한 자본 창출 능력과 주주 배당의 지속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아비바생명은 '투자계약을 포함한 순수입보험료(Net written premiums, including deposits for non-participating investment contracts)'를 통해 전체 사업 규모를 입증한다. IFRS17 기준상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투자성 계약 유입액을 합산하여 실제 영업 성과와 시장 점유율을 명확히 제시한다.

마. IFRS18 공시

아비바생명은 회계 정책 공시를 통해 2027년 시행 예정인 IFRS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의 도입 영향을 선제적으로 기술한다. 기존 IAS 1을 대체하는 이 기준서가 손익계산서의 구조적 변화와 경영진 성과측정치(MPM)의 공식화를 가져올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영업·투자·재무 범주에 따른 새로운 중간합계 도입과 정보 세분화 원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재무보고의 투명성 강화 의지를 드러낸다. 초기 이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서의 핵심 변화를 명시한 점은 정보 이용자에게 미래 재무제표의 가독성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국내 A사는 사업보고서에서 당장 시행이 임박하거나 이미 확정된 개정 기준서 위주로 미시행 기준 정보를 제공한다. IFRS18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을 포함하지 않아 장기적인 제도 변화에 대한 질적 소통보다는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의 충실한 이행에 무게를 둔다. 이는 국내 보험업계가 IFRS17에만 집중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시 태도의 차이는 정보 이용자와의 소통 방식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아비바생명은 새로운 기준서 도입이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공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임을 강조한다. 국내 A사는 확정된 기준 위주의 안정적인 공시 기초를 유지하며 불확실한 미래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보험회사는 회계 기준의 변화를 기업 가치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준다.

3. 소결

국내 보험회사의 공시는 IFRS17 기준서에서 제시한 항목만 충실히 반영하여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 국내 A사는 정형화된 서식 안에서 정량적 수치의 신뢰성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공시의 비교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유리하나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이나 계리적 가정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서사적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선도사인 아비바생명은 전략 보고서와 독립된 회계 정책 섹션을 통해 정보 이용자와 능동적으로 소통한다. 하향식 할인을 적용이나 기업 내부 리스크 성향에 기초한 위험 조정 설정은 원칙 중심 회계 하에서 기업 특유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특

히 대체 성과지표(APM)를 도입하여 회계적 수치가 담지 못하는 기업의 실질 가치와 자본 창출 능력을 직관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공시가 단순히 과거의 결과물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미래 수익 가시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됨을 의미한다.

국내외 공시 비교를 통해 확인된 핵심 과제는 정형화된 공시에서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 공시로의 전환이다. 아비바생명이 보여준 IFRS18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서사적 공시 방식은 국내 보험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치 공시를 넘어 주요 가정 산출의 구체적 근거를 보강하고 대체 성과지표를 활용한 가치 소통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회계 기준의 변화를 기업 가치 제고의 기회로 삼는 글로벌 수준의 질적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IFRS17 시행 초기 첫 분기 결산 과정에서 불거진 보험부채 평가 관련 이슈를 시작으로 지난 3년간 보험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평가 기준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IFRS17 시행 4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세한 공시를 통해 시장의 검증을 유도하고, 보험회사 스스로 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는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다.

이러한 공시는 크게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로 구분된다. 양적 정보는 공시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질적 정보는 정보 생산자의 판단과 전략적 시각을 드러낸다.

먼저 양적 정보 측면을 살펴보면 국내 보험회사는 해외 보험회사와 달리 계리적 가정을 포괄적으로만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손익구성과 보험계약마진(CSM) 변동 등에서 세분화도 미흡하여 정보 이용자가 부채 현금흐름과 보험손익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30년까지 세분화된 기간별 CSM 상각 금액,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등 일부 항목은 해외 보험회사와 달리 국내 보험회사 전체가 공시하고 있다. 이는 감독 회계상 공시요건을 일반회계 공시에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양적 정보 측면에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공시가 시장 검증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과 세부 내용을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회계 공시에서는 회사 총계 수준의 손해율만 비교되므로 사망·장해·입원·실손 등 영향이 큰 주요 담보별로 손해율을 구분 산출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회계공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계약 CSM, CSM 이자부리, CSM 상각, CSM 조정 등 CSM 변동사항을 보험회사 IR 자료에서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재의 일반회계 공시는 정보

의 양 자체는 방대하나 정보 이용자가 이를 이해하고 회사 간 비교에 활용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질적 정보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경영전략과 내부 성과지표 등 질적 정보는 해외 보험회사와 달리 국내 보험회사의 일반회계 공시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아비바생명, 매뉴라이프생명 등 해외 주요 보험회사는 내부 성과지표는 물론 회사의 전략 방향까지 공시를 통해 설명한다. 특히 매뉴라이프생명은 '경영진 논의 및 분석(MD&A)'이라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무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연간 비교치와 목표치를 함께 제시한다.

2027년 시행 예정인 IFRS18은 단순히 재무제표 양식의 변경을 넘어, 보험회사가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그간 일부 상장 보험회사의 IR 자료에서 자율적으로 활용되어 온 경영자 성과지표(MPM)가 주식 공시 사항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IFRS18 시행을 계기로 보험회사 공시는 단순한 과거 수치 나열이 아닌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과 미래 수익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험산업이 일반회계공시에서 감독회계공시의 정밀한 양적 정보를 통해 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IFRS18 도입에 따른 질적 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별로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한다면 보험회사 경영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계약자·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 또한 한층 공고해질 것이다. 다만, 회사 규모나 사업 특성에 따라 공시 정보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준현·정도진·정아름(2020), 「신보험계약기준서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변화가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보생산자 관점」, 『회계저널』, 한국회계학회
- 노건엽·한상용·박희우·이연지(2022), 「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2022-01, 보험연구원
- 노건엽·조영현·이승주(2023a),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경영」, 연구보고서 2023-04, 보험연구원
- 노건엽·이승주·전예지(2023b), 「IFRS17 영향분석과 성과지표 연구」, 연구보고서 2023-17, 보험연구원
- 노건엽(2025), 「IFRS17 기초가정 관리 감독 해외사례」, KIRI 세미나, 보험연구원
- 류건식·이경희(2006),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 체계 연구」, 연구보고서 2006-4, 보험연구원
- 변승무·한승엽(2025), 「IFRS17 시행과 보험회사 재무정보 유용성 변화: 가치관련성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한국회계학회
- 이준호·한승엽(2023), 「IFRS17(보험계약) 시행과 보험회사 재무적 변화」, 『회계저널』, 한국회계학회
- 이태기·노건엽·이준호·이원주(2024), 「한 권으로 정리하는 최신 보험회계」, 상경사
- 장동식·김경환(2012), 「솔벤시2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조사보고서 2012-3, 보험연구원
- 조석희(2024a), 「IFRS17 시행에 따른 현금흐름정보의 가치관련성 변화에 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 _____ (2024b),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 _____ (2024c), 「신보험회계기준의 시행과 영업손익 구성요소의 정보유용성 변화」, 『계리학연구』, 한국계리학회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https://www.lotteins.co.kr>)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https://life.miraeasset.com>)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

현대해상 홈페이지(<https://www.hi.co.kr>)

DB손해보험 홈페이지(<https://www.idbins.com>)

Allianz(2025a), “Power of unity Passion for growth”

_____(2025b), “Alternative Measures Performance 2025”

Aviva(2025), “It takes Aviva”

Aviva Life & Pensions UK(2025),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24”

Bruno Domingues Ramos de Carvalho and Joao Vinicius de Fanca Carvalho(2024),

“IFRS17: A Proposal for Disclosure Liabilities for Incurred Claims in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Advances in Scientific and Applied Accounting*, Vol.

17 No. 2. (<https://doi.org/10.14392/asaa.2024170205>)

ESMA(2024), “From “black box” to “open book””

Manulife(2025), “Manulife Financial Corporation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PwC(2024a), “IFRS17 FY23 Singapore reporting analysis”(www.pwc.com/sg/en/publications/assets/page/ifrs-17-implementation-for-reinsurers.pdf)

_____(2024b), “IFRS17 FY23 Australian reporting analysis”(www.pwc.com.au/insurance/IFRS_17_Disclosures_Thought_Leadership_AU_June_2024.pdf)

Ter Hoeven, R., Borelli, A. and Van Vlijmen, P.(2024), “First year’s application of IFRS 17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European insurance companies”, *Maandblad Voor Accountancy En Bedrijfseconomie*, 98(6), 403–422(<https://doi.org/10.5117/mab.98.139090>)

Allianz Group 홈페이지, “Group Financial Results”(https://www.allianz.com/en/investor_relations/results-reports/results.html#tabpar_7145_1Tab)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특별회원	₩150,000원	
개인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연구보고서

2026-02

IFRS17 공시 사례 분석과 보험산업 경영과제

발행일 2026년 4월

발행인 김헌수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ONE CENTINEL

인쇄소 경성문화사

ISBN 979-11-93021-26-2
979-11-85691-50-3(세트)

(정가 10,000원)

